朝鮮日報 夕刊 五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懸案解決에注力코 極東軍撤退交涉

重光新大使의赴任에따러서 日蘇外交大轉換豫想

(寫眞은 重光氏)

【東京電話同盟】重光新駐蘇大使는 드되어五日午後七時東京驛發列車로 赴任의 途에오르게되엿는데 同氏는 敦賀經由西伯利亞鐵道로 來十九日莫斯科到着豫定이다

過去三年間蘇聯의 對日外交는 日本의 東亞政策遂行의 障碍으로되여 歐米列國의 注視를바덧서는데 그主張은 米國에 蘇聯承認의成功과 蒂禍를說하는等事 日本을 國際的孤立에 빠트리라는것으로 이리트비노프外交는 相當한 成果를 收한듯흠이어서 日本政府의 對蘇方策은再檢討를 行치아니치수업게되엿다 過從來外陸海農林等關係當局間에 愼重協議의結果 今回如左의 方針을 決定하얏스므로 重光大使의 着任을 기다려 日蘇外交는 一大轉換을 보힐것으로 觀測된다

一、日本政府는 從來의 日蘇外交의 障碍除去는 爲先 懸案의 解決에잇다는 方針으로 對蘇交涉을 進行 石油、漁業의 關協定成立의 機運에 이르게하고 一方 國境紛爭問題處理 次 紛爭國境確定 兩委員會의 設置에 關하야 鋭意折衝中이다 그러나 今後라도 勿論 右方針에 變化는업스나 畢竟 日蘇國交의 障碍는 蘇側의 對日認識의 欠除에잇서 이것을 是正하는데잇다

一、過去數年에 亘한 日本牽制의 제스추어等은勿論 極東에 大軍을 集中하야 國境線에 進出을 試하며 一方日本의 對中政策遂行에 當하야 共産黨을 使嗾하야 日本의 正當한態度를 誹謗함과如한 行爲는 日本의 默過치못할것임으로 逐히 極東軍을 撤退하고 도威脅的 言辭를삼가하야 日蘇交涉의 要是正할것이다

一、蘇聯當局部는 率直 實際的으로 日本을 觀察하야 一切의 策動을 삼가하야 日本의對中政策을 妨害치안토록 留意함과同時에 日本이 東亞의安定勢力인 地位를 明確히 認識할것이다

日本의 對蘇方針은 以上과 如하야 相當한 決意로서 蘇聯의 反省을 求하야 日蘇國交의 調整을 圖코저하는바인데 西歐外交에 苦杯를 喫하고잇는 蘇聯이 如何한 態度로나올지가 注目되는바이다

內田氏收容으로 昭和會對策熟議

舵手를失한二十四名代議士 政友復歸도困難形勢

【東京電話同盟】昭和會長老內田信也氏의 收容으로 昭和會는衝擊을受하야 首腦部는 善後策에 對하야 腐心하고잇다 即青木精一、井坂豊光兩幹事는 四日午後六時 澁谷原宿의自邸에서 感冒로 靜養中의 望月圭介氏及山崎達之輔氏를 歷訪今後의 對策에 關하야 協議하얏는데 近近 所屬代議士會를열고 更生策에關하야 協議할模樣이다

元來 昭和會는 再昨年岡田內閣組閣과함게 入閣한 內田、望月、山崎三氏를中心으로 政務官其他 政友會 脫黨組로서 組織今年一月二十一日議會解散과同時에 正式結社의 屆出을 한것으로 表面望月、山崎、內田三長老로 指導하고잇스나 選擧費其他의 政治資金은 大部分內田氏에 依하야 調達되고잇서서 內田氏가 事實上의 總裁格이다 現在所屬代議士 二十五名으로 겨우 交涉團體를 이루고잇는데 山崎氏는 內田氏와 昭和會成立當初부터 會에對한 意見을 달리하야 熱意를가지지안코 時機를보아 方向轉換코저하고 望月氏도 亦內田氏에 代하야 黨의更生策을 생각하는 模樣도업다 그러나 脫黨當時의 事情도잇슴으로 政友會에의 復歸는 極히 困難하다 結局舵手를 일흔 二十四名의 代議士는 政界의 時期까지 現情을 繼持할수박게 道理가 업는狀態이다

內田氏에對한 取調內容骨子

【東京電話同盟】瀆職收容된 內田信也氏에對한 當局의 取調內容骨子는

一、昭和十年八月 飛島氏로부터 難波氏를 通하야 二萬圓을受取하고

二、同十一年一月 金八萬圓을政治獻金으로 ... 收受식혓다

는二項으로 이돈은 다 自己는 直接收入치안엇다고하나 取調結果 內田氏는 그돈의使途를 詳細히 說明하는點이 中心이된것인데 此等의돈은 當局의 取調에依하면 飛島、林田中各氏로부터 第一回一萬圓式計五萬圓、第二回各一名五萬圓計二十五萬圓 中八萬圓은難波氏를 通하야 政治獻金으로 引渡되엿다 나머지 十七萬圓은 別方面에引渡된것이로 이點은아즉明白치안타 土木業協會는 此等獻金때문에 相當히 苦慮하얏스나 談合金에 依하야 捻出한것으로 結局談合金의 一部가 獻金된것으로 이點에瀆職罪로問罪케되것이다

天皇陛下 新議事堂에行幸

【東京電話同盟】憲政永遠의殿堂으로 十七年의 歲月과 二千七百萬圓의 巨費와 日本現代建築學의 精粹를 傾倒한 永田町高臺에 白亞의 威容이 堂堂하게 竣工한 新議事堂은 來七日早朝 五日 天皇陛下의 行幸을 仰하야 憲政史上 光榮의 一頁을 印하엿다 當日 天皇陛下께압서는 陸軍禮式御通常禮服으로 鈴木侍從長宇佐美侍從武官長 松平宮相以下를 거나리압시고 午前十時 略式自動車鹵簿로 宮城御出門 同五分 馬場藏相、近衛 富田 松平 兩田貴衆兩院正副議長以 整列의 奉迎裡에 新議事堂正面에着御 馬場藏相의 御案內로 一旦二層便殿에入御 馬場藏相、近衛 富田貴衆兩院議長以下 關係勅任官以上 十數名께 單獨拜謁을 賜하압시고 馬場藏相으로부터 新議事堂建設經過에對하야 沂衛、富田兩議長으로부터 各其院務에對한 奏上을 天聽께하압시고 御少憩하압신後 愈愈玉步를 院內御巡覽에 옴기시엿다 陛下께압서는 먼저 近衛議長의 御先導로 貴族院에 玉步를 進하압시사 扈從한營繕管財局技師로 新議事堂設計者인 大熊喜邦博士로부터 材料樣式 其他에 關한 御說明을 御天聽하압시고 玉座議長室等 主要各室을 天覽하압시고 整列奉迎하는 平生가주고 貴族院食堂에서 禮裝厳儀를 衆族院議員 一同에게 列立拜謁을 賜하압시고 富田議長 御案內로 衆議院에 同하야 平文相、潮內相、永田拓相以下 拜謁하압시사 議長室、衆議院食堂 議事堂、衆議院、議長室 ... 富田衆議院議長에서 ... 母木遞相、小川商相以下 衆議院議員一同에게 列立拜謁하압신後 陛下께압서도 屋上에出御、附近 官廳街와멀리 帝都의 全貌를 暫時 天覽 約五十分에 亘하시와 御巡覽을 終了하압시고 再次 便殿에入御 圖表에依한 御說明을大熊博士로부터 天聽하압시고 十一時五十分 諸員奉送裡에 同議事堂을 發御 宮城에 還幸하압시엿다 그리고 貴衆兩院은 이光榮에 奉對하야 統營紀念六百分之一의 新議事堂模型을獻上하엿다 恐懼하압게도 陛下께압서는 行幸에臨하압시와 貴衆兩院에 議事堂、落成紀念으로 御敕章入銀製鉢을 一個式 御下賜하압시게신바 松平宮相을 近衛、富田兩議長에게 各其傳達하엿다 그리고 兩院議員에게 酒肴料로 金一封御下賜하압시엿다

國民精神作興 詔書捧讀式

十日總督府正面玄關에서

來十日國民精神作興에 關한 詔書渙發記念日에 際하야 總督府에서는 當日午前十時부터 正面玄關前에서 全職員이參集 詔書捧讀式을 擧行、皇居遙拜 國歌合唱後 南總督의 詔書捧讀及 訓示를行하고 式을 閉하기로되엿다

駐英獨大使 英蘇海軍條約에反對

【倫敦四日發同盟】倫敦駐箚獨逸大使리벤트롭氏는 着任以來英國外務省과 接近하야 英蘇海軍條約에 關한 獨逸政府의 意向을傳하야 重要折衝을 行하고잇다고 傳한다 特히리벤트롭大使는 事實上蘇聯海軍의 增强을 認定케 되는것이오 倫敦條約및 英獨海軍條約主旨에 反한다는主張으로 反對하는同時에 英國政府가어데까지 原案을 固執함에잇서서는 獨逸政府도對策을 考慮치아니치못할것이라고强硬態度를示하고잇다고한다

獨伊兩國의非難을 蘇代表猛然反駁

西政府軍援助事實有無中心으로互相激論 對西不干涉委員會서

【倫敦四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委員會는 四日 英國外務省에서 議長프리마스卿 司會下에 開會되야 獨伊兩國政府의 非難에對한 蘇聯政府의 反駁回答을 上程審議하야 蘇聯代表마이스키大使는 兩國政府의 非難을一一히 反駁하고 떠욱이 九月十八日 마드리드郊外헤다페스飛行場에 고르키會社製 爆擊機四臺가 發見되엿다는 非難에對하야 蘇聯에는 고르키라는 名稱의飛行機工場이업다고 主張하야 獨逸代表베스탁參事官及 伊太利代表그란디大使의間에 激論을交하얏다 다시 마이스키代表는蘇聯汽船쿠바、콤소몰二隻이 西班牙에向하야 食糧品과 衣服뿐만아니라 武器彈藥도 輸送하고 콤소몰號카르타헤나港에 戰車十五臺를陸揚하얏다는 獨逸政府의 非難에關하야 베스탁參事官에게 情報의 根據를明白히하라고 肉薄한바 베스탁參事官은 그責任이 업다고하야 兩代表間에 强硬한問答이 反復되여 委員會의 空氣는 一時險惡化하엿스나 結局 프리마스卿의 仲裁로 蘇聯政府의 回答은 大體로 滿足하다고 決定하얏다 但마이스키大使에 對하야 콤소몰、쿠바兩汽船問題其他若干의 點에關하야 다시 本國政府에 照會하고 다시回答을委員會에 提出하도록要求하고 委員會는 敎會하얏다 이리하야委員會는 再次破局을 回避할수엇섯스나 議長푸리마스卿이 終始蘇聯代表와 獨伊代表間에 調停한것은 注目할만하다

루氏의再選確實

헐長官外交政策闡明

【華盛頓四日發同盟】米國國務長官헐氏는 四日루즈벨트大統領의 再選을 謳歌하고 兼하야 米國政府今後의 外交政策을 闡明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루즈벨트大統領의 再選은 民主黨政府의 善隣政策에 對한 輿論의支持를 表明하는것이다 民主黨政府의 外交政策의 基調는 恒久的平和促進과 戰時에잇서 嚴正中立에 잇는것으로 從來 歷屆闡明하바로 余는今後이政策을 繼續하여가려고생각한다

土耳其大統領 友好親善을力說

【앙카라二日發同盟】土耳其大統領케말·아타튜르크氏는 一日 土耳其議會의 開院式에 臨하야 內治外交全般에 對하야所見을 開陳하엿는데 特히 外交關係에 對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一、土耳其政府는 隣邦各政府와友好親善關係를 維持하고잇는데 特히 蘇聯邦、英國、아프가니스탄各國政府와의關係는 最近더욱 改善되엿다

一、蘇聯政府와는 十五年來 親善關係를 維持하고잇스며 英國政府와도 몬트르會議以來 에드와드八世의 來訪이잇서 友好關係가强化되엿다

一、유고슬라비아首相스토야디노비치氏의 來訪으로 同國과의 關係는 親善을 하게되엿다 그리고 西歐의 情勢가 緊迫되여 잇는데 比하야 東歐各國政府가 親善關係를 維持하고잇는것은 欣快하야마지안는다

四、五相兩會議다 各閣僚愼重考究

議會政治擁護機運과軍部意見懸隔

【東京電話同盟】四相會議及 五相會議의第一回會合은 모다 今後 審議方針에關한 妥協을終了하고 雙方이모다 次回會議에 研究資料가 提出되기를기다려 本格的討議를開始하기로 協議하고 各閣僚가 모다 極히 愼重한 態度를 示하엿는데 今後에는 大體로 每週一回式會議를開催하고 會議의 進捗을 圖하는데는 兩會議가모다 一致되여잇다

▲그리고 中央行政機構에關하여는 軍部의參考提案이 具體的內容을 示하고잇슴으로 爲先次回會議에잇서서 陸海軍兩次官의說明을 聽取하기로되엿다 中央制度에 對하여는 馬場藏相 前田鐵相도 相當한意見을 갓고內閣調査局에나 政務方面에도 各種腹案이 存在함으로 軍部案은어데까지參考案으로 看做하는데서 今後軍部案 內閣案 政黨案三案을 中心으로 四相會議의 意見을 調整하기를 協議하고 大體로 本議會前即今年末까지에는 軍部案의 大綱을 決定할 方針인데 果然어느程度의 成案을 收得할는지 軍部案과의 懸隔이 너무 甚할時에는 到底히 陸軍案兩相의 承認을얻게될는지 疑問으로 注目된다

▲一方五相會議에서는 軍部提案은 關稅 具體的 內容이업고 地方制度及 議會制度刷新은 軍部의 抽象的으로 地方制度及 議會制度刷新을 希望하고잇슴으로 軍部案의說明을 聽取할 必要는 認定치안코나 地方制度에 關하여는 從來 內務省、內閣調査局、農林省、商工省等에서도 研究를 繼續하엿고 떠욱 地方長官의意見도 內務省에 提出되어 外에 政黨方面에는 各種意見이存在한바 中央制度에 比하야 問題는 廣汎且複雜함으로 大綱을 어느程度의 意見이 날는지 疑問이다 問題의 性質上 이것이 政治問題化할 念慮는 比較的적고 其改革에關하여는 五相會議는 其第一次會合에서 議院選擧法및 貴族院三調査會와 步調를合하야 審議를 進捗하기로 決定하고 三

잘못하면窮地에陷入

存在한바 中央制度에比하야 問題는 廣汎且複雜함으로 議會制度의 大綱을 어느程度의 ...

國民政府에서 十二商埠地閉鎖

最近의對日强硬政策의發現 日本權益에重大影響

【上海十五日發同盟】國民政府는 民國以來 中國側이 自發的으로 開放하엿든 全國商埠地三十一個所中 左의十九個所를 保留하고 殘餘의十二商埠地를 閉鎖하야外國人의往來及 居住를 禁止하기로決定하엿는데 右에關한 法律을 一兩日中에 公布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禁止된 商埠地中에는 中國側이 日本人의 經濟的進出을 極力拒否하고잇는 綏化城 包頭 等 海港의 重要地와 南 等 海港의 重要地와 海州 等이 包含되엿는 것으로보아 이는 最近國民政府의 對日强硬政策 發現과同時에 日本權益에 重大關係가잇슴으로至大한 注目을끌고잇다

保留된 商埠地는 吳淞 浦口 岳州 南寧 張家口 濟南 藥皇島 胡蘆島 武昌 膠濟 威海衛 昆明 鼓浪嶼 濾淞 赤峰 洮南 太倉 鄭縣 濱東

閉鎖된 商埠地는 無錫 常德 龍口 包頭 三都澳 周村 桂林 徐州 湘潭 海州 濰縣 歸化城

河北全省教育界連名 行政院에通電!

大學敎授의反日宣言에呼應

【北平四日發同盟】北平各大學教授七十二名連署의 反日時局宣言 發表後 表面沈默을 직히고잇던 北平敎育界는 그後 潛行的으로 河北省內全大學、中等學校、女學校、小學校敎職員을激勵하야 드되여 三日附로 河北全省敎育界四百六十五名連名으로써 行政院에對하야

河北省은 中華民國의 一部로서 河北人民은 中國人民의 一部이다 吾人은 中華民國의統一勢力下에 絶對로 國內分裂을 避하고 領土保全의完整保持를 要望한다

는電報를發하엿다 右는過般七十二敎授의 宣言에 呼應하야 河北省全敎育界의 意思表示를 한것이라 한다 다시 一方에서는 北平大學을 中心으로하는 學生運動도 漸次 熾烈化하는 傾向이잇서 輕視하지못할 形勢를 示하고잇다

民政黨少壯派 軍部案에痛憤

有志代議士會開催

【東京電話同盟】軍部의 政黨政治否認議會權限縮少論에 對하야는 依然民政黨內에 强硬論이 이러나고 四日午後少壯派議員協議의 結果

一、憲政의 基礎를 破壞하고 如한 軍部의 意見에 對하야는 國民을 代表한 政黨으로서 拱手傍觀할 때가아님으로 此際 自重論을 排하고 黨幹部를 鞭撻하야 議會 ... 하야 決議를 하고잇는 ... 行動하야 ...

安南共産黨員 警官隊와衝突

【西貢四日發同盟】最近國內에 共産主義運動이 活潑化된 安南政府는 嚴戒하고잇든바 去三十一日安南에 가까운 현州에 安南共産黨員百餘名이 赤旗를 先頭로 行進을 하야 地方廳을 襲擊하려함으로 警官隊는 보이스카우트를 應援으로 이를 解散하려엿는데 共産黨員側에도 死者二名 負傷者十名을 내이고 警官側에도 負傷者가 生하엿다 地方廳舍는 襲擊이 實行되지안엇다고하는바 政府는 萬一의 境遇에 備하야 警官隊가 出動하야 警戒하고잇다

京城府市街地案 原案대로可決

市街地計畫委員會에서

第二回 市街地計畫委員會는 五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會되야 大野委員長渡東中임으로 (大竹內務局長이 代理로서 統裁하야 總督府各局長(財務 殖産 農林 各局長은 代理)及佐枝朝鮮軍參謀長 越智鎭海要港部參謀長 賀田商議會等 各委員(有賀 韓兩委員欠席)及臨時委員으로 湯村京畿道知事、松村第二十師團參謀長等出席 爲先大竹委員長代理의인사가잇슨後 直時議事에入하야 過般京城府에 諮問한

一、京城府市街地計畫街路網決定의件

一、京城府市街地計畫土地區劃整理決定

의兩案을 審議한結果 原案대로 可決報告하고 正午 散會하엿다

駐京蘇聯總領事館 建國十九週年記念

十一月七日은 싸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第十九週年革命記念日임으로 府內貞洞에잇는 蘇聯總領事館에서는 京城駐在各國領事및一般官民代表者의 리셉숀을同日午前十時二十分으로부터 十一時半까지 同領事館內에서 맛는다고한다

人事·集會

▲白麟濟氏(京城醫專敎授)一年間 豫定으로洋行人事次四日來社

▲吉田鐵道局長 明年度豫算交涉次二週間豫定으로 來五日午後京城驛發渡東

八面一錄

◇ 圖們會議의 結果 朝鮮農民의 滿洲移民은 安東省、間島省外 數三縣에 限한다고。

◇ 風俗、習慣、言語、感情이가른 한民族을 一定한 區域으로 移民시킴은 滿洲國의 一省이나 二省、數縣에만 限하는것은 너무도 狹隘한 늣김。

◇ 氣候 안줄고、土壤 肥沃한 農地에는 어데든지 가도록할 어떠한가。

◇ 朝鮮內의 植物名을 蒐集한 朝鮮植物名彙를 上梓한다고。

◇ 戰時之際이 不穩하나 늣드래도 안하는것보다는 낫다。

◇ 行政機構改革案을 主張하야 議會政度 無視論。

◇ 議會政治는 反對하고、政黨政治는 反對라고。

◇ 나치스나 팟씻스트도 議會는 잇스니까。

陽氣업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가진 果然! 무엇이냐?

樺太廳官營▲海狗腎▲을販賣함

海狗腎은 補精腎氣强壯에 神秘的靈効가잇다함은 이미世上이 共認하는바어니와 元來此藥은 이稀有한貴品으로 高價를 免치 못하야 一般이 容易히 購入키 어려웟슴니다 ... 其藥效의 驚異的함과 그稀貴함은 各國의 不正品類似品을 誘出하야 ... 이에對한 硏究와 調査를 經한 結果

眞品海狗腎은 腽肭臍임을 證함

海狗腎은 腽肭獸의 生殖器로 ... 特히 其中에도 一頭가 百餘頭의 雌를 統率하는 猛獸로 ... 主로北洋寒帶地方인 日本領土인 樺太島 露國領土 米國領土 等地에서 繁殖하고잇슴니다

國際的으로 繁殖을 保護함

此動物이 人類保健上不可缺할高貴의動物이라 從來는 各國이 競爭的으로 捕獲하야왓스나 明治四十四年十二月 米國華盛頓에서 日、英、米、露의 四個國이 協約會議를열고 所謂海狗保護條約의 締結이成立되자 그當時로 向十五年間은 一切捕獲을 禁止하얏슴니다

至今은樺太廳에서官營으로若干捕獲함

捕獲禁止期間이 經過한今日이라도 一般民間은 絶對不許하고 直接樺太廳에서 官營으로 一定한時期에 捕獲하야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嚴正한檢査를한後 皮肝과 肉은藥用으로 販賣하는바 特히腎은大部分中國方面으로 輸出하고잇슴니다

弊社에서拂下指定販賣함

此海狗腎은 이미世界的高貴品으로 認定되자 目下樺太廳에서官營으로 捕獲하는 그것도 決코 無限度가아니라 國際的繁殖保護條約에基하야 其數量과期間이 制限되고잇슴으로 現今生産數는 極히小量에 不過함니다 故로各國商人들은 此의拂下指定을 受得하려고 相當한競爭을하야왓음은 不言可知할바이요 從來는 擧皆가外地商人의게 取扱되고잇슴을 今般弊社에서 大膽히巨大한納金을敢行하고 이에拂下指定을 特約하얏슴니다

右와如히 弊社에서 販賣하는海狗腎은 一般類似品과는 特異한 樺太廳官營採取品으로서 個個이樺太廳의 鑑札이붓튼後에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檢査證明한 眞品이오니 平素에求服을 願하시는 諸位는 勿失此期하시고 一次試服하시면 此果然眞品海狗腎인을 自認하실것이외다

此海狗腎은何必補精腎氣壯强에만아니라 腰痛、胃弱、消化不良、不眠症、神經衰弱等에 特効가잇슴니다

價格 (送料別입시)
特大 一具 二十五圓也
上大 一具 二十二圓也
並大 一具 十八圓也

注文 地方에는代金引換에도應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 朝鮮釜山府本町

惠山邑衝擊豪言

長白府에서避難民殺到大雜沓

市民大會열고 對策講究

咸南對岸에 共軍集結

【咸興】 돌은 다 장백부(長白府)부근에 출진하야 잇다는데 이일 오후 일곱시에는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의 별동대 일백오십명은 공산군의 최전방으로서 장백부(長白府)지 가지와 혈기에 혜산읍(惠山邑)을 습격하려고서 직대안(直對岸)약 병의를 수포(藥水浦)조라을 (습격(襲擊) 일두고 하아와서 초민들로시켜 일반일서 함 안으로 장백부를 습격하겠스니 낭대안 미리경무국에가서 고하라고까지 에잇든 하는 대담한행동을 하고잇스며 공산군 본대(本隊)가 도착되는것을 기다려서 혜산읍(惠山邑)의 습격을단행하겟다고하는데 벌서혜산읍의습격은 단지시간문제로되여 잇다 이리하야 장백현의주민들은 매일에 수십명식 그중에도 또 판공리의 가족은하나도 빼지 안코 다리를 부지럿는데 곳시내 부 조선내지로 피난하야와서 대분 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잡을이루고잇스며 혜산(惠山)시내는 극도의 긴장으로 사일오전열한시부터 공회당에서 그대책으로 시민대회(市民大會)를개최하고서 조선군사령부와 삼십칠려단 사령부에 수비대(守備隊)의증원을 전청(電請)하얏다고 하며 다시삼산긔차랑(杉山磯次郞)등 이명을 진정원으로 선정하야 각관계당국에 직접진정하리라고 한다. ×

巡査試驗落第하고 落膽한끄레犯行

元町强盜段興完의犯行經路

저난나흘날 새벽 원정(元町)삼정목우편소에 드러가다가 붓자편 강도범인단흥완(段興完)(二〇)은 그후 평산서에서 성과(星橋) 서병주임의 손에 준엄한문초를 맞고잇는중이데 범인은분시조선인쇄회사(朝鮮印刷會社)와 평양(平壤)에 잇는 삼중정(三中井)백화점에 점원으로 잇다가 그후 순사가되기를 뜻하고 그시험준비에 골몰해오든중 지난구일에 거행한 시험에 그만 미끄러지자 범인은 자포자긔하는생각에 사로자펴 마침내 굴승차(西勝次)의 담배가가와 원정삼목 우편소에 전후두번이나드러갓든것이라한다.

그런데 범인은 평소에 어찌나순사되기를 몹시원하고 원래든지 먼첫번 강도범행을 저질르고나서도 세상이야 자긔가저질른 범행때문에 소동하고 잇든, 또는 경찰이 아모리 잡으려고 기장되여도 나는붓들니는드시 더러만지도 개념치안코유유하게 부내각도서관으로 도라다니면서 의연히 순사시험을치를위망을 끈긔잇게 가지고그공부에착심해오다가 다시돈이 궁해지며둘재번범행을 저질르게된것으로 문초하든성긔주임도 범인의 이런 담력에는 놀라기를 말지안코잇다.

해서 시내 인사정(仁寺町)평안(平安)택시 경(京)일천일백팔십이호 자동차에 허은순(許銀順)(二〇)라는 코파가치여서 외쪽

最新의朝鮮地圖

宋基柱氏가苦心完成

우리의손으로 처음완전한 조선지도가완성되엿다는기쁜소식이잇다! 이제도자(製圖者)는 평남 강서(江西)출생의송긔주(宋基柱)(三七)씨로서 저는 우리글의『타입라이타—』(打字機)를발명하엿든분이다 씨는일즉이연희전문학교(延專)를마친후 미국으로건너가 "시카고"대학에서 지리학부(地理學部)지도선생 "꾸—쓰씨"의문하에서 지도를그려가면서 고학을하야 졸업후에는 세계에서 제일큰지도제작회사 "마크나—리"회사에취직하야 연구를계속한경험을가젓다 재작년봄에조선으로도라온후 좀더완전한조선지도를 만들계획을 세우고이때까지만 이개년이란 세월을지나 겨우완성하엿다

지도의 특색은 지명이보통지도보다 다수배나만코 교통망도 자세한데 극히최근것을 표준한중 방금계획이진행되고잇는 중앙선(中央線)철도 경춘선(京春線)철도 예정선까지 들어가고 또지명도 최근의행정구역 변경후의것에 의한것이다 산업 방면에도 자세히 류의한것등, 조선지도로서는 최근의 특색을어려가지 가젓다고할것이다 (사진은송긔주씨)

高齡者二百名

總督이招持

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중오는구일의 경로(敬老)애유(愛幼)일에 남총독(南總督)은 의시내에사는 팔십세이상 고령자초대회에 관하야 오일오전열시부터 총독부 사회과장실에서 관계관이 타합한결과 당일오전열한시부터 총독관저에 고령자 약이백명을 초대하고 여흥는 다과회를열고 호긔념품을증여하기로되엿다

精神作興週間

來七日부터

경성부와 경성교화단체련합회(敎化團體聯合會)주최로 오는칠일부터 십삼일까지 칠일동안은 정신작흥주간(精神作興週間)으로 정하야 이것을 일반부민들에게 철저하게할터이라한다 『삐라』를 박여서 미리부터집집마다 돌리고 정신작흥주간전날인 륙일부터 련속하야 밤마다 경성방송국에서도 정신작흥에 관한 강연을 방송하기로되엿다한다

▲칠일은 신사참배일(神社參拜日)
▲팔일은 건강증진일(健康增進日)
▲구일은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
▲십일은 극기인고일(克己忍苦日)
▲십일일은 생활개선일
▲십이일은 공덕함양일(公德涵養日)
▲십삼일은 보은감사일(報恩感謝日)

老婆轢傷

오일오전세시경에 시내종로삼정목 공성사(共成社)압

協展搬入開始

긔보—조선서회협회 제십오회 전람회는 대강당에서 개최하는데 벌서부터 서화계의 인긔는 오로지 여긔에 집중되고잇서 성황을 예긔하고잇다 사진은 오일오전중의 작품반입

運動競技

鍾路基靑主催 聯盟戰은明夜

歷代優勝팀과部署發表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第十回全京城籠球聯盟戰의華麗한幕은明六日午後六時半부터鍾路靑年會內室코—트에서열리어來二十八日까지의日曜日을除外한二十日동안에籠球界의 興趣를한것이끌게되엿다 이에參加한團體는中等部十八團體와 靑年部七團體로서實로二十三團體에 達하는 盛況을이루고잇다 이제同聯盟戰의 歷代優勝팀과 어번聯盟戰의 役員을紹介하면 다음과갓다

歷代의優勝팀

第一回 (第一部) 中央基靑
第二回 中央基靑
第三回 百合籠球團
第四回 (中學團) 協成實業 (靑年團) 延禧專門
第五回 (中學團) 協成實業 (靑年團) 普成專門
第六回 (中學團) 協成實業 (靑年團) 普成專門
第七回 (中學團) 中東學校 (靑年團) 百合籠球團
第八回 (中學團) 中東學校 (靑年團) 延禧專門
第九回 (中學團一部) 保留 (中學團二部) 實業專修 (靑年團) 延禧專門
第十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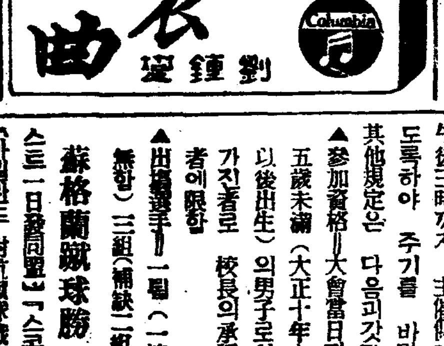
聯盟戰任員

會長 尹致昊 副會長 具滋玉
委員長 李正鎬
本部委員 玄東完 徐相天 金圭冕 崔在煥 李丙三 呂運弘 玄正柱 金應集 洪秉璇 桂炳鎬 張權
審判委員 潘河斗 張權 田盛鎬 李性求 金振秀 李惠淵 丁相允 安台慶 宋基宇 崔淵昊 孫福俊 林東洙 康殷錫 崔海龍 洪文吉 金應鎬 李文鎬 申光浩 張利鎭 辛在龍
記錄委員 高鳳梧 李永善 南愚興 徐廷福 秦審 金炳德 朴美鼎 金亨泰 李基台
計時委員 金明德 金龍九 金德銀 李正相 馬鳳玉
接待委員 張鍊敎 李性宰 黃永洙

平壤籠球對陣

【平壤】 平壤崇實專門學校體育部主催의 第六回全平壤籠球聯盟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지난十月三十一日부터 來十四日까지에 完了할터인데 그競技日程은 다음과갓다

▲六日(金)崇實B…光成A(午後七時) 光成B…崇商B(午後七時四十分) 崇實A…平農(午後八時二十分) 崇商A…西洋人(午後九時)
▲七日(土)崇實B…崇商B 崇實A…平籠 光成B…西洋人 崇商A…光成A
▲九日(月)崇實A…崇實B 光成A…平農 崇商B…平籠 崇商A…西洋人
▲十日(火)光成A…光成B 崇商B…平農 崇實B…西洋人 崇商A…平籠
▲十三日(金)光成B…平籠 西洋人…平農 崇實A…光成A 崇商A…崇商B
▲十四日(土)平籠…平農 崇實B…光成B 西洋人…光成A 崇實A…崇商A 閉會式



少年庭球大會

來八日京城運動場

朝新主催의 第一回全鮮少年對校軟式庭球大會는 來八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開催할터인데 參加申請은七日午後三時까지 主催側에 到達하도록하야 주기를 바란다고하며 其他規定은 다음과갓다
▲參加資格=大會當日까지 滿十五歲未滿(大正十年十一月九日以後出生)의男子로서 學籍을가진者로 校長의承認을 밧은者에限함
▲出場選手=一팀(一校에制限이無함) 三組(補缺二組)

蘇格蘭蹴球勝

【벨파스트】 一日發同盟 『스코트란드』對『아일랜드』對抗蹴球戰은 一日當地에서擧行한바 三對一로 『스코트란드』軍快勝하엿다

思想國防講演會

大東民友會主催로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주최로 오는팔일 오후일곱시에 시내견지정(堅志町)시천교당에서 다음과가튼 사상(思想)국방(國防)강연회를 개최한다고한다

▲最近의滿州 總督府學務課長 高尾甚造氏
▲國防에關한知識 陸軍中佐 李晟俊氏
▲朝鮮은어대로? 車載貞氏
▲大國家主義란무어이가 朱鍊氏

頑味한母性愛!

病든외아들을順化院에서일코 發狂—派出所서야단치고잡혀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한밤과 가튼 어둡다—오일오전 열한시경에 서내 삼청정(三淸町)사는 김씨(金氏)라는 로파가 소격정(昭格町)파출소에와서 『나의 자식을 내여노하라! 내자식을 왜죽엿느냐!』고 야단을치며발광을함으로 이를마류하던 경관도 하도기가맥히다못하야 드듸여 오르비이로 본서에 보호검속을하엿는데 이제그사연을 들어보건대 전긔 로파에게는 오직그가 의지하고 살던 리긔덕(李基德)이라는 외아들이잇섯는데 얼마전에 장질부사(腸窒扶斯)에 걸린것을 우매한 로파는 순화원(順化院)에 들어가면 죽는줄만알고 이를숨겨오다가 결국 경찰에 발견되여 로파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듸여 순화원에 수용되엿든것이 또공교롭게 사흘만에죽어버렷다고한다 이에로파는 독자를 일코정신에 이상이 생기여 매일파가리 소격정파출소에 가서 자긔자식을 내여노하라고 광태를 부리든것이다

平壤에또强盜

이번에는精米所를襲擊强奪 全市에森嚴한捕盜陣

【平壤支局電話】 꼬리를 물고일어나는 평양시내의 강도사건— 오일오전네시십오분경 시내창전리(倉田里)이백십삼번지 정미업하는 고관조(高觀祚)씨의 집에 식도드른 강도가 침입하야 주인을 협박한후 현금십오원을 강탈도주하얏다는데 범인은 어십전후의 경우를한 양복을입은 청년으로 이근보를 드른평양서에서는 악연하야 서원을비상소집하는동시에 전시에 천롱가튼 수사망을 느리고 범인을엄탐중이다 평양은 그동안 칠팔번의강도사건이 연다라 일어낫고 또어제는 은행강도사건이 돌발되데다가 또 이와가튼 흉긔강도가 연거퍼 이러난것으로 경찰당국의 랑패는물론 일반시민은 큰불안속에 싸혀잇다한다

北阿峴町小火

오일 오후일곱시 사십분쯤에 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이백팔십삼번지송태봉(宋泰鳳)의집에서 불이나서 동여러시상시문통에 일동이호로전소하고 겨우진화하엿다 원인은동여폐잇는집단에 불이단긴것으로 인욕의피해는업섯다한다

建築規則의繁弊로 不良"居間"이跳梁

【許可手續에도莫大한手數料를바더먹어】 便宜圖謀코자京畿道에問議係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令)에 따라 건축규측이 개정되엿스므로 경성부내의 일반건축허가는 종래보다 좀까다라웁게 되엿는데 이긔회를타서 건축관계의업계와 수속을하여주는것을 영업삼고잇는 사람들은 수속에 어두운 일반민중들에게 대하야터업는 수수료를 청구하고혹은그 수속이 불비함을 말미암아당연히 속히 건축허가를 어들수잇는것도 시일이 절연하게하는 폐단이 만흐므로 경기도 경찰부보안과(保安課)건축계(建築係)에서는 건축설계수속등을 무료로해주기로 목적한 건축문의계(問聯係)를 두어서 일반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방금준비중이라는데 불원간에 실현하게될터이라한다

電氣蓄音機

훔처서게집질

황금정(黃金町)철정목 일삼삼사번지 『빠·원나』에서 고용하고잇는 강원도(江原道)출생의 변동호(邊東浩)(二九)는 지난 삼일밤 집안사람들이 모다 잠든사이에 『빠크로로라』의 축음긔 시가약이백원—을 훔쳐서 상에 파라서 신정(新町)에서 호화로운 생활을하다가 사일밤 본정서 특별고등대에 피검되엿다

安城富豪恐喝事件

一、二審判決에疑點잇다고 事實審理키로決定

지난삼월이십팔일 안성군미양면미산리(安城郡薇陽面馬山里)신현규(申鉉奎)씨에게 자긔는 조선군경리부과견원으로 안성지방에 군자금채입에십팔만원을 거두러왓스니 현금이천원을 조선조희에싸가지고 욱일삼월삼십오일오후열시에 미양역『홈』전등미레노와두되 만약이말을배설하면 전가족을이겟다는 공갈문서를 보내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수원(水原)지청에서와 경성복심법원에서 공갈미수(恐喝未遂)죄로모다 징역일년과징을받고 고등법원에 상고중인 안성군미양면보체리(保體里)이십일번지 정신모(鄭伸謨)에관한 상고 공판은 오일오전열시부터 고등법원에서 희두(喜頭)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미테열엿든바 재판장은 피고의 상고취지서와 잇고록을 조사한결과 공갈문서를 보냇다는 날자와그문서에 적힌 우편국의 일부인(日附印)이 틀린다는 점, 또는 피고가 그때 안성에 잇지안하엿다는점,또는 피고가 다소 정신이상이잇는듯한데 불구하고 정신감정을 하지 안흔것등 원심판결에잇서서 충분히 심리치못한점이 잇다하야 다시 사실심리(事實審理)를 하겟다는 결정을 내리엿다 과연 피고가 그가를 공갈문서를 보냇는지 심리에 따라서는 사건전부가 뒤잡혀지도 알수업서 자못 일반의 흥미를 끌고잇다.

簡易保險活寫巡廻

경성체신분장국(京城遞信分掌局)에서는 간이보험(簡易保險)을 보급시키는동시에 지방가입자의위안을 겸하야 근래회중의 지방순회활동사진반을 다음과가튼일정으로 각지를순회할 터이라한다

▲十一月六日 單浦
▲十一月七日 溫陽
▲十一月八日 禮山
▲十一月九日 揷橋
▲十一月十日 洪城
▲十一月十一日 大川
▲十一月十二日 舒川
▲十一月十三日 長項

歐洲遊歷하고 鄭寅燮氏歸鄕

지난 팔월에 조선을 떠나서 영국(英國)런던—에서 열린 세계언어학대회(世界言語學大會)에 출석하엿든 연희전문학교(延禧)교수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간사인 정인섭(鄭寅燮)씨는 불란서(佛蘭西)독일(獨逸)영국(英國)등 각국을 유력하고 오는 칠일 오후 일곱시사십오분에 경성에 도착하리라한다

陰城邑內電話架設

음성우편소(陰城郵便所)에서는 읍내에도 오는 십일부터 시내전화를 개통하기로되엿다 음성읍내는 근래에점점 발전되여가는상태이므로 체신국에서는 얼마전부터 시내전화가설공사를 하여오든중 요지음에 드디여준공된것이라한다

店品을典執 遊廓費用에充當

싹수노란"라듸오"外交員

범죄의배후에는 항상녀자가잇다— 시내창신정(昌信町)륙백삼번지 박금석(朴今石)(三〇)은 지난 칠월중순부터 종로(鍾路)륙정목 백십륙번지 『라듸오』상회의 외교원으로 근무중 우연한긔회에 알게된 신정(新町) 금강루(金剛樓)의창기 주연(朱燕)(二〇) 그이와서로 깁흔정을매젓스나 그들의사랑에는 반드시 따르는돈이 떠러지자 박금석은 자긔상점주인을 속이고 값빗싸게팔곳이잇다고하야서는 라듸오를 전당포에 잡피고서 사랑의자금을만드러 그녀자의환심을 사오다가 그만그범죄사실이 탈로되여 사일밤 전긔금강루에서 달콤한꿈을꾸고잇다가 본정서원에게피검되엿다 피해액은 약삼백원가량이라고한다

稅務監督局서 納稅功勞者表彰

경성세무감독국(京城稅務監督局)에서는 금번 읍면장(邑面長)납세조합(納稅組合)및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의간부등 일상공세(徵稅)의 제일선에서 로력하고잇는사람들을 표창하기로되여 읍면장 이십팔명 구장사십일명 납세조합 농촌진흥회의 간부 열여섯사람도합 칠십오명을 표창하기로 결정하고 상일 각세무서에서 표창식과 전달식을거행하엿다

꼴고다의언덕에서 十字架에못박든基督에게 침뱉은男子의 이것은영원히도배
世紀의大悲歌
沈默의凱旋
콘나드페아이드 一生의名技
九日封切 團成社

京城消防署 秋期點檢擧行

경성소방서에서는 오일오전아홉시부터 경성훈련원(京城訓鍊院)에서 소방추긔점검(消防秋期點檢)을 거행하엿다

麻雀노름꾼 여섯명에科料

【開城】 지난이일 오후 두시경 부내서본정(西本町) 이오일번지 김근(金根)방 "마작유긔장"에서 륙명의 마작당이모혀 한래에 일원오십전식걸고 도박을개장하엿든바 경찰에 발각체포되여 유치취조중 모다 과료칠오원식 처분을 당하엿다는데 그들의 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府內 元町三二 金東源(三七)
▲同西本町三五九 朱萬秀(三二)
▲同大和町一三六 洪淳元(三〇)
▲同東本町五三五 林學吉(三二)
▲同元町八〇九 崔相源(三三)
▲同東本町二六 金大鍊(三三)

天氣豫報

概況 昨日沿海州에잇든低氣壓은 千島方面으로가고 高氣壓은 滿洲南部로부터 南朝鮮에 퍼저왓다 滿洲와朝鮮은 天氣가조코 氣溫은昨朝보다 五度乃至十四度나下降하엿다 日本內地는 흐린데이만코며北西風이 强하나 北海道地方은 北西風이 强하나 琉球群島는 天氣가조타

豫報 今夜는개이며 來日은 개엿다가조곰흐린다 京畿道全區도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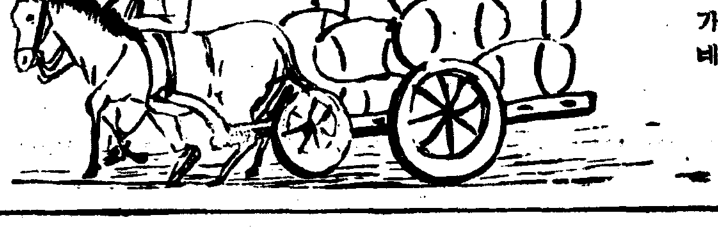
昨日最高	一五度一
昨日最低	七度七
今朝最低	一度五
今日正午	一二度四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收入確實하고確的한需要가만흔軍手編物製造를奬勵합니다
●此事業이야말로晝夜晴雨의嫌疑이업시年中勞力할수잇습니다
●弊所의發明機는操作이單純하며素人이라도能히當日收入을엇을수잇는有利事業입니다
●弊所는軍手의製造를家庭의餘暇勞力으로活用하는副業으로普及식히며綿絲의供給製品의引受等을相互連絡을取하며共存共榮의目的을達키爲하야目下各地에製造家를要求하고잇습니다
就業을希望하시는분은左記弊所營業所로御照會次第說明書無料送呈합니다。
京城府黃金町五 軍手専門 幹旋問屋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二七五三番·振替京城二四三八〇番

◎勿失好機!
農林省最高 優位入選機
トパタ 輕油 石油 發動機
瑞光式籾摺機
マツダ精米機
最優良機械의 特價販賣 期限 昭和十一年十二月十五日

鑛山、土木、水道 農業用諸機械 發賣元 フクロクストーブ
京城府南大門通二ノ一三三 株式會社 松田淸商店機械部
支店 新京、奉天、大連、哈爾賓、天津
(詳細型錄進呈)

冬節衣服次景品附大賣出
동절의복차경품부미출

景品內容案內 합니다
一等 白米四斗入 一俵
二等 洋服 一着
三等 高級구레빠 세루周衣 一件式
四等 高級本絹하부다이치마저고리 一組式
五等 벤베루구치마 一件式
六等 玩具及菓子 一個式
期間 自十一月一日부터 至十一月三十日까지
五圓어치를려사고 짤한마차가저가세

婚需次에는特別謝恩品을進呈합니다
半額奉仕品目錄
교직 한저고리감 三十五錢 빠
문회단 한저고리감 二十錢 고
교하부다이 한저고리감 九十錢 다
문회견 한치마감 至十五錢 공
한송판 한치마감 一圓○五錢 원
세아루정 한치마감 一圓六十錢 위
但洋緞木과 半額品에는 景品券은進呈치안습니다
먼곳에서오시는 손님에게는 電車賃을進呈합니다
地方注文에는 一圓以上 先金을要합니다
信用商店 京城鍾路二丁目三三 電話光一三一七番

매독엔 푸로다ㅣ를 쓰시오

科學의進步(과학 진보)
滅毒裝置(멸독 장치)의威力(위력)!

매독엔 푸로다ㅣ가 제일인 리유(理由)

매독엔푸로다ㅣ가 제일인리유(理由)사루바루산주사(六〇六號)는 일주일에 한번씩 수십주일을두고마저야겨 우일시잠복식히는것은이매독이세상에서업서지지아니하고다시 도지고 하는것을 보아도잘알수잇고 또 잘못하면살이썩고 생명까지위험한일이잇다 결국혈액중에잇는균은 생리적으로 흡수된약이아니면속 지아니한다 또 무지한사람은독한수은(水銀)을 피다가생명을 빼앗기 는일도잇고 병이속으로、드리거서、평생고질로비참한 일생을보내게되며 혹갑싼것을 취하다가입안이헤여지 고 속이뒤집히고음식을못먹어큰욕만보고 병도못고치는일이잇스니 한번이런병에걸니는것도 무섭고참혹한일인대불 합리(不合理)한치료는 돈만허비하고 큰고통을밧게되니참 두려운일이다푸로다ㅣ는먹는약으로 구감안나고 위장안상하 고생리적으로 병독균을멸사식히고 사람의피를깨끗하게하는 최고귀한약제 만 든선발명한 약이 다첫재로 매독균을죽이는성분이 가장합리하게만 히도려잇고약원료(原料)가고귀하야 다른약보다 약갑이좀마 느나 속히드르니결국싼것이다 셋재로 약효가속하고 넷 재로 구감안나고 위장안상하고 부작용업고 다 섯재로 피를맑게하는 정혈제(淨血劑)니몸 에리(利)가되고 여섯재로 환약임으로 먹 기쉽고 일곱재로 잘흡수됨으로 생리 적으로 뼈골 에백인병독까지 업 새면 다시도지지아니한다

매독병은 선천 후천두가지가잇는대 선 천매독(先天梅毒)은 선조상으로 나 부터유전하야 병독을바더가지고 나 온병이오 후천매독(後天梅毒)은남녀간 불결한성교(性交) 나그러치아니하면 목욕탕 침구변소 변기(요강)가튼데서전염하는 화류병 인대 세상에 제일무서웁고 지독한병이다 한번 걸니면칠팔대(七八代)나무죄한 자손에게까지 유전하야적악(積惡)을 할뿐아니라일신의 비참한최후를맛치 게되는것이다 신이끈어지고 코가떠러지고 눈이멀고 목이 창이나고 등창이나고 사대육신이 쑤시고 머리가 빠지 고심하면 뇌매독이되야 천치가되고 정신병자가되며 급 기야에생명을 일케되고만다 독일화류병연 구박사의 발표 에의하면 세게인류(人類)의 대적은 곳매독이요 우량한 민 족의씨를 말니는것도 곳매독이라고하니 참두려웁고끔찍끔찍 한 병이다 이병은전염된후시기와 체질에따라서곳 발생도하고 몃달몃해후에 발생도한다

◎제일긔매독전염된지 삼사일 일주일내로 신에조고만하게뾰 루지가난다 그러나심하지아니한 사람은 난듯만듯하게어느틈에 업서지기도하고 또신두가 헐기도하고 곰기도한다 역시일주일 쯤되면 업서진다 그러나 곳피로들어가서 전신에돌아버리는것이 다 잘못하면 병이전염된줄 모르고그냥 내버둘두는 일이만타

◎제이긔매독신이나 여자음부에는계속하야 나기도하고차차가 래톳이스고 구미가업고 신열이잇고 골이쑤시고 몸이가려웁고 여기저기 종기가나기 시작하고 눈이희미하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에여드름 갓치 돗가도하고 몸 이느른하고 목이쉬고코가헙 고 붉고 멍울이스고 하야 비로서 누구든지 잘알게된다물론이러한 증세 가 한번에 나는것은아니다

◎제삼긔매독병 독이 전신에깁히 겹히들어 가서번성하게되야연한 뼈까저(軟骨)파먹게되는 고로 코가떠러지고 등창이나고 목이아조쟁기고 목 구멍이 뚜러저서 언청이소리를하고 머리가헐고 눈에 백태가끼 고나종에는 멀고 신이둘러빠지고 낭이진물러 지고 웬몸이 만창이되고 뇌매독이되어 최후를 맛치게된 다 그리하야 자손에게 전염하고민족을점점열등(劣等)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질이다 이와가튼 증세에의심이잇든지 매 독으로 신음하시는분은 푸로다ㅣ를쓰시오 푸로다ㅣ의효능 매 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 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 毒性僂麻質斯) 약은환약이오 구감이나거나 위장을안상합니다 약갑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 중한분은 보통병과다르니 칠 원짜리를쓰시오 약은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 일로 비밀히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 환이면 삼십오전이오

가약

완고증에	칠 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원
중증엔	오 원	
경증엔	삼 원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 좀심하면 칠원짜리가좃습니다

만일 무효면엇더한 책임이라도집니다

매독엔「푸로다ㅣ」로

이추부의눈물겨운고백을드르시오이세상의악마는매독입니다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제일큰흰벽돌집

電話光三三四三番 ● 振替京城四九五〇番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光州支社 全南光州府明治町四丁目二七
宋淳炯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李光澤 京畿道水原邑北水町
孫良明 軍威
孫德淳 長湍

市內卸賣總代理店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尹璿

忠南之部 代理店 天安邑內 徐光年
慶南之部 代理店 龜浦 朴基俊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金鳳藥房
咸南之部 代理店 端川郡汝海津 韓仙藥房
永興郡宣興面 嚴龍德
咸北之部代理店 漁大津 閔泳熙
惠山線合水驛前 永生堂藥房本店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池潤衡
京畿道之部 特約店 仁川府外里 德仁百貨商會
金浦邑 中和堂
開城府都橋市 回生堂藥房
始興郡新東面平眠里 ハヤシ藥房
永登浦 李鍾英
龍仁郡南四面鳳鳴里 裵鍾瓚
水原郡鄕南面發安里 李相鉉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金佑傑
京畿道水原邑內 李殷根
京畿道陵谷驛前 金德根藥房
京畿道素砂驛前 陵谷藥房
永登浦町五三三 和春商店
楊平郡龍門面新店里 徐順藥房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許鍾植
洪城邑豐農園 朴訂均
成歡驛前安成商店 李康佾
扶餘郡良化面草旺里 宋千逸
公州郡錦町 高文寬
全義驛前 楊明順
忠南溫陽溫泉 鄭寅九
忠北之部 特約店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溫陽藥房
忠州錦町三八 華信藥房
全南之部 特約店 忠州邑淸水町一二〇 朴綺陽藥房
順天邑金谷里 鄭北藥房
潭陽郡大田面谷城里 金禎泰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丁判燮
海南郡邑內 玉山堂藥房
全北之部 特約店 群山府藏財町一四五ノ二 千珍玉商店賣藥部
金堤邑內 中一藥房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韓東泰
井邑郡七寶面白岩里 陳善長
茂朱郡赤裳面北倉 李廷鎬
益山郡王宮面興岩里 柳用極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金永順
慶南之部 特約店 京釜線勿禁驛前 朴德煥
咸陽郡安義面錦川里 大光藥舖
河東邑 崔商偶
晋州邑昭和町大明堂 淸生堂藥房
晋州邑明治町 金三珠
晋州邑日出町一〇九 金元春
晋州邑日出町六二 第一藥房
晋州邑日出町 金成藥房
晋州邑榮町 大昌洋堂
馬山府俵町 ツバメ藥房
馬山府石町 李鉉秀
釜山府寶水町義眞號 五行堂藥房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韓明東
居昌邑內 孫秀振
蔚山郡凡西面斗山里 韋榮龍
密陽驛前 朴山堂藥房
南海 松慶堂
泗川郡西浦面養師里 華生玉
晋州郡邑明治町五五 金鍾藥房
[illegible]山府富町市場入口 平和堂藥房
天和藥房

慶北之部 特約店 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尙州郡邑外[illegible]里
善山邑本町
[illegible]郡[illegible]山面[illegible]
善山邑內
佛國寺驛前
大邱府達城町三〇
淸道郡華陽面松金洞
江原道之部 特約店 金化郡邑
江陵邑內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城驛前
原州郡富論面興湖里
洪川郡化村面君業里
平康郡福溪驛前
鐵原邑中里
元山府南村町二四
元山府廣石町一
元山府
甲山郡惠山鎭本町
興南驛前九龍里
咸南北靑郡下車書面[illegible]
咸南馬場驛前
黃海道之部 特約店 載寧邑內
鷄井驛前
鳳山郡德在面赤城里
海州邑北旭町二五七
信川郡龍門面[illegible]陽里
延白郡彰德里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安岳邑內
載寧邑內
南川驛前
沙里院本町通
平南之部 特約店 平壤府大和町通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龍川驛前
龍岡郡海雲面城峴里
龍岡郡海雲面龍井里
安州郡立石市 李鳳信
平壤府南町四一
平壤府橋口町四〇
平南价川驛前
平北之部 特約店 碧潼邑內
龍岩浦線香山驛前
龍岩浦農民共生組合
宣川邑川北洞
鐵山郡邑內
江界郡公北面香洞
熙川郡邑上洞八五
宣川邑川南洞
新義州彌勒洞
新舘驛前
定州郡大田面雲鶴洞
雲山郡北鎭市
雲田驛前
新義州府眞砂町
咸南之部 特約店 新浦邑內
定平郡新上驛前
永興郡[illegible]面三[illegible]里
豐山邑內市 義信商店
長津郡郡內面上梅田里
新高山驛前
北靑邑 壽世局
北靑驛前
咸北之部 特約店 北靑郡下東書面萬[illegible]市
吉州邑內
城津港旭町
城津郡鶴南面[illegible]洞
雄基港本町
會寧邑大正通
城津港旭町
淸津府新岩洞
朱乙驛前
明川邑明川洞
雄基邑本町
雄基上本町
城津邑旭町
羅南邑初瀨町
羅南邑生駒町
明川郡下加面漁浦區內花台市
畤外之部 特約店 名古屋市南區中山町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間島龍井市大通路
安東縣平場通九丁目三番地
滿洲國三江省依蘭縣三姓市南關前

[illegible]

支社設置大募集

●各道及 府廳所在地에서 有力한 新進
●事業家 大特典募集 支社經營하실
支社希望이라明記하서 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들ㅅ길

지방과 철분을 만히먹어야 추이를안타게돼

체온의보충공작으로필요하되 ◇단지과도한것은탈

며칠내로 일긔가 갑작이 치워집니다. 이제부터는 겨울로 들어서는 모냥입니다. 그런데 날이 치우면 우리의 체온(體溫)을 자꾸 외긔에 빼앗기는 까닭으로 그만큼 그것을 보충치 안흐면 되지 안습니다. 체온을 보충하는데는 물론 카로리를 만히 섭취(攝取)해야 될것이라 음식물부터도 골라서 자시어야만 될 것입니다. 본래 철이 갈리면 그만큼 먹고 십고 비위가 당기는 음식이 달러지지 안습니까? 그것은 곳 무의식중에라도 필요한 자양분을 섭취하게되는 것이 아니겟습니까? 그러나 의식적으로 거긔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음식물을 선택하는이만 갓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脂肪)이 만히 든것을 만히자서야합니다. 예컨대 육종가튼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철분(鐵分)이 만히 든것을 만히자서야합니다. 예컨대 싱건치가튼것입니다. 지방은 몸에 들어가지고 체온의 근원이 되는데잇서 다른 어느 자양보담도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잇습니다. 즉 단백질이나 함수탄소는 한그람이 사카로리밧게 안되는데 비하야 지방은 한그람에구카로리나 생긴답니다. 또모든 음식물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화(酸化)되야 열이 생길때에 철분이 필요하게되다는 것은 요사이알어진 사실입니다. 그이외에 철분은 동분(銅分)과함께혈액을 증가시키는 힘이잇습으로써더구나 요긴하게 치는 것입니다.

×

지방으로써야 식물성(植物性)이나 동물성(動物性)이나 매일반입니다. 단지 소화로 보아서 식물성보담동물성이 더 조흘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이든지간에 너무만히 섭취하야서는 도리어 장애가 됩니다. 즉 지방이 만히 든 음식물은 위에남어 잇는 시간이오래되는것만큼 가슴이 압바질때까지 업지 안습니다. 그럼으로 그런 음식이란될수잇는대로 식욕이 댕기는 때 먹어야하고 또 신선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치 못 하얏다가는 소화불량만을 이리키기 말란 법이 업습니다. 본래 음식이 한 귀분에 맛아서도 소화가 잘됩니다. 먹고 시픈 것을 먹어서는 잘 되지만 먹고십지안흔것을 먹어서는 잘되지 안습니다.

×

그러고 치운 때일수록 더웁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의 맛도 어느정도까지 더워야만 나는것은 물론이요 그소화도 어느정도까지 덥지안하서는 잘안되게 됩니다. 제일 걱정되는것은 학교다니는 애기네들의 변도문제입니다. 아모리 더운물이잇다고 하지만은 찬밥을 그대로 먹인다는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솜보재이가튼데 싸서 주시는 것이 어떠습니까? 좀 밍큰만 하다면야 소화에야고만조흘것이 아닙니까?

京城保育學校 第一回 秋期大音樂會

오늘밤同校大講堂에서

시내 청진정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에서는 매년피가면등 코대강당에서 오는육일밤 칠시반에 제사회음악대회를 열기로 되엇는데 출연자는 교수와학생 일동으로써 서거의일류악가들이라한다 입장은 초대장을가진분에 한한다고

미의최대조건 눈을곱게하자면

화장보다도눈의위생이제일

무엇이 어떠니하야도 녀성의 매력(魅力)은 태반이 눈에달렷다고 볼수잇습니다 그러타면 어떠케해서 새ㅅ별가튼 눈조리를 가질수잇슬까? 이것은 적어도 현대를 호흡하고 자긔에 충실한 녀성이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생각해보는 문제가 아닐수업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표정미(表情美)의 연구입니다 사람의 히노애락(喜怒哀樂)은 아모리 하더라도 정직하게 눈에 나타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지금나의 눈은 어떠한 표정을 하고잇슬가」하는것을 생각하고잇는것은 조금 수다한것가트나 실상은 대단히 조흔것입니다. 그리하야 이러한 히노애락의 표정이 눈에 집중되도록 연구하는것도 조흡니다 우리조선녀성이 겸손와 풍토로 말미아마 아름다운눈을 가지고잇스면서도 표정이빈약한것은 원통한 일입니다 그리하야 눈을아름답게하고 표정을풍부케가진다는것은즉 세하는데 중대한 영향이잇습니다 눈동을운동시켜서 표정의 풍부를 도울필요가 절실히늣겨집니다

눈 정플을 운동시키는데는 맨처음 눈동자를 조용히 좌우편으로 옮지기는데서 시작하야 좌우상하로 점점속력을 노피고 마음대로 움직일수잇는 정도까지 연습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미간에서 시작하야 탕줄을눈두엇을 맛사-지를합니다 이것은눈의 피로를 회복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울뿐아니라 지방의 균형을 도우는것입니다 그리고 첫재 잠을 충분히자야할것입니다 일을 하는 중이라도 눈이피로해지거던 잠이분동안 눈동을 가볍게 고 손구락으로 눈을 눌러주도록하십시요 이것은 눈을 아름답게하는데 제일가는비결입니다

이러케하야 눈의건강과 미를 조장시키는 외부공작은 끗낫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공작을시작하는것입니다

위선 자고일어날때 또는 자리에누울때와 외출하고도라왓슬때는 반듯이 깨끗한냉수로 눈을 잘씻는것이 조흡니다 눈을시칠때는 세수대야에 물을 갓득싯흔후 얼골전체를 물속에 너허두고 눈을 깜작깜작하여야 조흡니다. 이때에 붕산을조곰넛는것도 대단히 조흡니다 이것은 눈의피로를 풀뿐아니라 눈병을업세는것입니다

이것이 끗나면 비로소 화장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아니고 인위인까닭에 다 각각 자긔의 기양과 제조에 맛길수밧게 업습니다 주의할것은 천연스럽게 조화되는 화장을 하도록 하며 눈섭도 너무짓트게 그리는것은 조치못합니다

눈섭을 그리는데는 원채의로 속눈섭과 평행되게 그리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사람의 얼골전체와 조화된것을 원칙으로하고 개성의특징을 발휘하지안흐면안될것입니다

『아이샤도-』를 쓰는것은 밤화장에만 한하는것입니다 눈등이 너무지나치게 살이찐사람이 낫에『아이샤도-』를 쓸테면엿트게 풀등것을 쓰는것이조흡니다

『아이샤도-』는 밤화장에라도 결코 지트게 칠치말고 눈등입부분에 조곰만발러주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올 류행

양복부속품

금년겨울에 류행되는 신사용 양복부속품몃가지—

첫재 와이샤쓰는 『뿌로-드크로스』『마드레스』『옥스포-드』가튼것이 새로류행되고 잇습니다 더욱 『옥스포-드』가튼것은 단연 가볍웁고 생듯한 까닭에 단연 환영입니다. 빗갈은 푸른빗 다색 이주장인데 이두빗갈을 조화한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리고가는다란 줄이 모이여잇는것을 주는것도 조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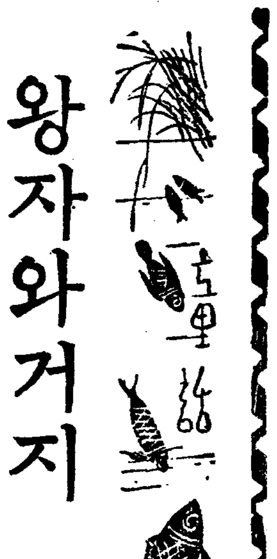
다음으로 넥타이는 대담한선은 점점 굵어지고잇습니다 종래에 가는편스나 지금 이 류행하고 잇습니다 더구나 배색(配色)은 검은것을 중심으로하고 전체의 늣김을 될수잇는대로 침착하게하랴고 애쓰면서 대담한곳이 잇는데 특징이 잇습니다

양말은 이와반대로 여간흐린한것이 안입니다 될수잇스면단조로운것가트면서도 선이 굵고 줄이 허황하게 확드러나는데빗갈은 푸른빗을 중심삼고 명랑조를 질겨합니다

왕자와거지

⑧

마-크·토웬 作 崔秉和 譯



四、거지가된왕자

얼마동안은 작란꾼들이 굿찬케따라오면서 욕을하고 놀리기도하드니 이제는 한사람두사람다가버리고 왕자혼자 남어잇게되엿습니다. 왕자가 구경꾼들에게 향해서 어디까지든지 점잔케꾸짓고 왕자로서의명령을 할때는 작란꾼들에게 조흔구경거리가 되엿지만 그런는동안에 왕자도 괴운이몹시지처서 말할기운도업는것을보고는 모다들 흐터저갓습니다.

단혼자남어잇는왕자는 이제 새삼스럽게 사면을살펴보앗스나 대체 지금어느곳에잇는지 도모지알수업고 그저 서울장안에잇스려니하엿습니다 왕자는 그저방향업시 혼자서 타박타박거러가는동안에 집도 띄염띄염잇고 행인도 드므러지드니 얼마안가서조고만개울가에 다다럿습니다

왕자는 그개울에서 피가흘러내린 다리를씻고 조금쉬엿다가 또거러갓드니 얼마안되서 커다란절이잇는 큰마당터에 이르럿습니다. 왕자 그절이낫지 의엇습니다. 그래서 갑작이 새기운이 나서 이제는 이이상 혼이안나리라생각하고 퍽기뻐하얏습니다.

『이절은 아버지 임금님께서 구차하고 의지가업는아이들을 위하야 육아원(育兒院)으로 내리신것으로써 이름을 기독사(基督寺)라고지은곳이다. 이만치 은혜를베푼 임금님의 왕자이니깐나를 위하야 기쁘게 시중을드러주겟지, 더욱이 오늘은 그왕자가 마치 이곳에잇는 아이들처럼 불상하고 가엽게 되엿스니 더말할것도업다.』 이러케 혼자중얼거리면서 왕자는 한거름 두거름 그근처에서 뛰여단이며 놀고잇는 여러아이들틈으로 드러갓습니다.

그곳아이들은 모다 똑가튼 옷을입엇습니다. 아이들은갑자이 작난을꾸짓더니 왕자겨트로 모혀드럿습니다. 왕자는 또 점잔은말소리로

『얘들아, 황태자가 이곳원장(院長)에게할이야기가잇스니 나를안내하여라.』하고 말하엿습니다. 그러니깐 아이들은 일제히 와!하고떠들드니 그중에서 대장인듯한아이가

『엇저고엇재? 네가황태자라고, 네까진거지자식이…』하고 욕윽함으로 왕자는성이나서 허리로손이갓지만 그곳에는 아모것도 업섯습니다. 아이들은 이꼴을 보고 와!하고우스며 떠들엇습니다.

『얘, 너이들도 보앗지, 제가 정말왕자인체하고 허리에찬 칼을뽑을랴하고 허지안니, 이자식이.』한아이가 이러케말하니깐 여러아이들은 또허리가 부러지도록우섯습니다. 왕자는 또화가나서

『나는왕자다. 우리아버지임금님의 덕택으로 먹고사는 너이들이 나에게 이러한무례한것을하여도 상관업슬줄 아느냐?』하고 말하엿지만 이것도역시 우슴만크게하엿슬뿐이지 아모소용이업섯습니다. 제일먼저 말을끄내든 소년이

『얘 이왕자님의 아버지가되시는 임금님의은덕으로 살아가는너이들이 이게무슨무례한짓이냐 자-모다들 힌누더이황태자께 절을 하여라』하니깐 모다 킥킥웃고쿡쿡 찔르면서 땅바다에 무릅을 꿀코 절하는흉내를하엿습니다.

왕자는 별안간 아페아이를발루차드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엿습니다.

『에이 내일안으로 너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테니그리알어라.』 이러케되고보니깐 그냥호지부지되지는 안엇습니다. 별안간 우슴이끗치는듯하더니 아이들은 성이잔득나서

『이자식을 끌고가자 말씻는여붓으로 끌고가장. 개는어듸잇니. ——뿌-、뿌-라이온—— 땅그스(개일홈)오나라 오나라.』

아아、얼마안되서임금님자리로나갈 귀엽고거륵한 왕자의몸이 무지막지한 아이틈촌에붓들리여 맛고거더채이고 개는옷을찟고 살을무려뜻고 예전에드려보지도못하든 참혹한꼴을 당하게되엿습니다.

五、『톰』의아버지

어느덧 해가 저믈랴할때 그근처를 지향업시 헤매이든왕자는 어느시그럽고 드러운뒷골목으로와습니다. 원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손에는피가흘르고 입고잇는누더이옷은 흙투성이가되엿습니다. 이곳저곳 도라다녀길은 모르고 다리는 아프고하야 몸이몹시 지처습니다. 사람에게 밥을 무러도대답혹하야주는사람도 업섯습니다. 오직 입속으로만 몃번이나

『잡스런뒷길— 그러라 몸이 터지치기전에 어떠케해서든지 그곳까지는 가야하겟다.』

"오리와달"

달님이 올라와서 물속에 비친것을 물고기로 알고 숨박꼭질을 하여 드러갓습니다. 동무 오리들이보고 모도 웃고 놀려 주엇지요. 그랫드니 그뒤 부터는 부끄럼을 타서 작구머리를 물속에 처박엇습니다.

(원산사립 남기훈)

食慾을도두는무 갑싸고 먹을때

무飯饌에 味の素를 처서아츰 마다자시라

珍味하고 天然的ヂアスターゼ가消化를돕는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무것저리

材料 무한개、柚子세個조세숫갈、간장한숫갈、味の素한사수、소곰조곰 써러서 소곰다섯숫가량치 뭇처서 조곰무거운돌을눌느 二三時間을너쏘 짭나면벙하여진데를찌내이다 다음에 柚子를골고루써러 납비에 무와 柚子를석나넛코 그우에 초와간장味の素를 한해친다음 다시-무거운 돌노 二三時間을넛다가먹는다.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咸州坪咸草

(咸興王北省巡禮記…(二))

李殷相

半島의歷史에서 가장 意義깁흔곳은 咸興大野다 彩爲의雄大함이 果然 그러한歷史를 못가젓던들 도리어 妄實할번하엿다。

여기 이 곳에는 大野를 主人이 내몬하하고 서로나타나 擧手를든고 鬪爭하엿다마당 東扶餘 高句麗가 서로이어서 이大野에 제살림을 차리엇섯고 渤海와 女眞이 여기다 지旗를꼿고서 一千七百年의긴 歲月을 누렷거니와 우리가저 野人을모덕보며 兵鬪를 달리기에바뻐를 못노피던 엇이다 이 大野의 舞臺에서 된것이며 또이냥때문이엇던것이다。

우리의 恩人 尹瓘의 女眞征服은 歷史의興亡을 規制하야 제대로 永遠히 빗나는 金字塔이요 이 大野의한께 즐길수업는 偉業이다。

아침해비츨 바다 生動하는 저東海의 푸른물결、그리고심으라 나하주라란」하고 아낌업시 열려잇는 미덥고 든든한 이 너른벌판、아옥려 이를 다내것만들어 물려주려고 [illegible]의 十字架를 지고 거룩한 그물을 헤아리지 안코 이곳을 지나가는者가 잇슬것이냐。

[illegible]先生은 이咸州大野를 두고

[illegible]
[illegible]一篇

이러하고서 노래를 불럿거니와 내야 이제 부끄러운 얼굴을 牛鬐手巾으로 가리웟스니 무슨 입으로 이를 부를것이냥 다만 血 꾸지저 뎌디다 微禁를 떠롭이다。그러나 고개를 숙인채로 嗟히업시 나오는 노래나마 벗과 함께 가리워고싶다。

[illegible] 버허던감
뉘게傳로 가시온고
白鷗야 너는듯이
어늬곳에 무첫나니
지금에 녹슬은동미들고
못[illegible] 하오려
차저서 알틀하도
물러물러 주시려고
[illegible]의 十字架를
지고지고 가신이를
오가며 생각하시오
無心하지 말으지오。

元이 이곳을 掠하고서 許多의大野라 일컷던 이 咸興平은 이가티 彼我의 干戈아래서 그運命을 飜覆하기에 한숨의 틈도 편안한 군데가 업섯거니와 이 大野의 周圍에 잇는 저 許多한 古城들은 무엇을 說明하는가。

定平都連浦의 長城 이러것은 高麗一代의 歷史에서뿐아니라 朝鮮全史를 通하야 特記할만한 長城이어니와 이慶地에 널려잇는 許多한古城들 東北으로 德山洞草原古城이며 退潮의古城、北으로는吾老坪古城과 西으로는 白雲山古城、이며中峰古城과 銀德里古城等、어크고적은 군데군데의 城壁들이 얼마나 어곳主權의 數多興亡을 直接的으로 證明해준다。

눈에뵈어오는 山과들과 바다가 모두다 이마를찌르는칠이아니면、뗄미를 치는 뭇칭요、종아리를 때리는 채칙인줄을 너무도 기피늣기지 안을수업다。

그러나 고맙지 아니한가。저元兵와 金賊으로하여금 섬한발로 못들어가게한 我太祖의 潛邸이던 本宮을 벗어나매 慶興에 멀던마음을 慈愛의손길로 어루만저주는 아름다운 自然이 기다린듯이 웃고맛는다。

西湖、昌湖、三湖같은 글字그대로、들어와 고요한 安息하는 품경을 거울을 비웃는 그맑고 빗나는湖面우에 흐르지아니하는빈배들。그리고가만하날러노는 하얀갈매기들엇 지로은 工夫이 어떤畵家가 하느님에로부터 五分間 許할여쁩를 그린그리기 許하야 許諾밧은 時間이가보다。

나는하느님께로부터 이時間과 이風景을 잠간빌린 그畵家에게 내고마음을 감기며하야 어리석은 소에를 드리며 뜰스러게도 悲鳴으로써 주기를 바라는것이다。

한바다 버려두고
西湖에 잠들줄이
편안히 쉬는여기
새도배도 한가한데
사람만 갓鉄히바뻐
빨라지나 가더라。

(續)

리아리즘의擴大와深化
『川邊風景』과『날개』에關하야 (四)

崔載瑞

그러나 우리는『川邊風景』에잇서서 캐메라를 指揮하는 監督的機能에도 마찬가지 程度로成功을 보여주지못하얏슴을 섭섭히 생각한다 朴氏의캐메라는 그가向한곳을 잘撮影하얏다。그러나 그보다몬저 朴氏는 自己의 캐메라를 어듸로向할가、그리고 場面連續에엇더한 意圖를줄가? 이런點에對해서 좀더생각할餘地는 업섯슬까? 映畵監督에 映畵技術以上의 그무엇이 必要하다할것이 眞理라면 小說家에 小說技術以上의 그무엇이 必要하다할것은 더욱 眞理일것이다。技術以上의 그 무엇이란 結局 描寫의 모든 떼테일(細部)을 貫通하고잇는 統一的 意識—그것은 이社會에 對한 經濟的批判일른지도모르고 또人生에對한倫理的 關心일는지도 모른다。何如튼讀者가 이곳저곳으로 끌려단인後 그意識에남겨지는 統一感이다。이點에關하야 나는『川邊風景』에 多少의疑惑을품는다。그러나 우리는 이作品의全體的構成을 말하기前에 그部分部分에 나타난 作者의手法을 좀더仔細하게吟味할必要가잇다。

「날개」

우리는 目前에 金起林의「氣象圖」에잇서 알수업는詩를 보앗고 이번 李箱의「날개」에잇서 알수업는小說을만난다 이것이무엇을 意味하든지간에 何如튼 우리文壇에 主智的傾向이 結實을보기始作햇다는證據는 되고도남는다 그리고 이傾向은讀者의困惑이잇슴에도不拘하고 斷然히 歡迎하여야할傾向이다。

「肉身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疲勞햇슬때만 精神이 銀貨처럼 맑소」 이것이 序言에서 作者自身이 한말이다 여기서우리는 肉體와 精神 生活과意識 常識과叡智 다리와날개가相剋하고 鬪爭하는 現代人의 一타입을 본다 精神이 肉體를焦火하고 常識이 生活을 壓倒하고 叡智가常識을 克服하고 날개가 다리를갈하고 나갈때에 李箱의 藝術은 誕生된다。따라서 그의小說은 普通小說이 끗나는곳—卽生活과行動이 끗나는곳에서부터 始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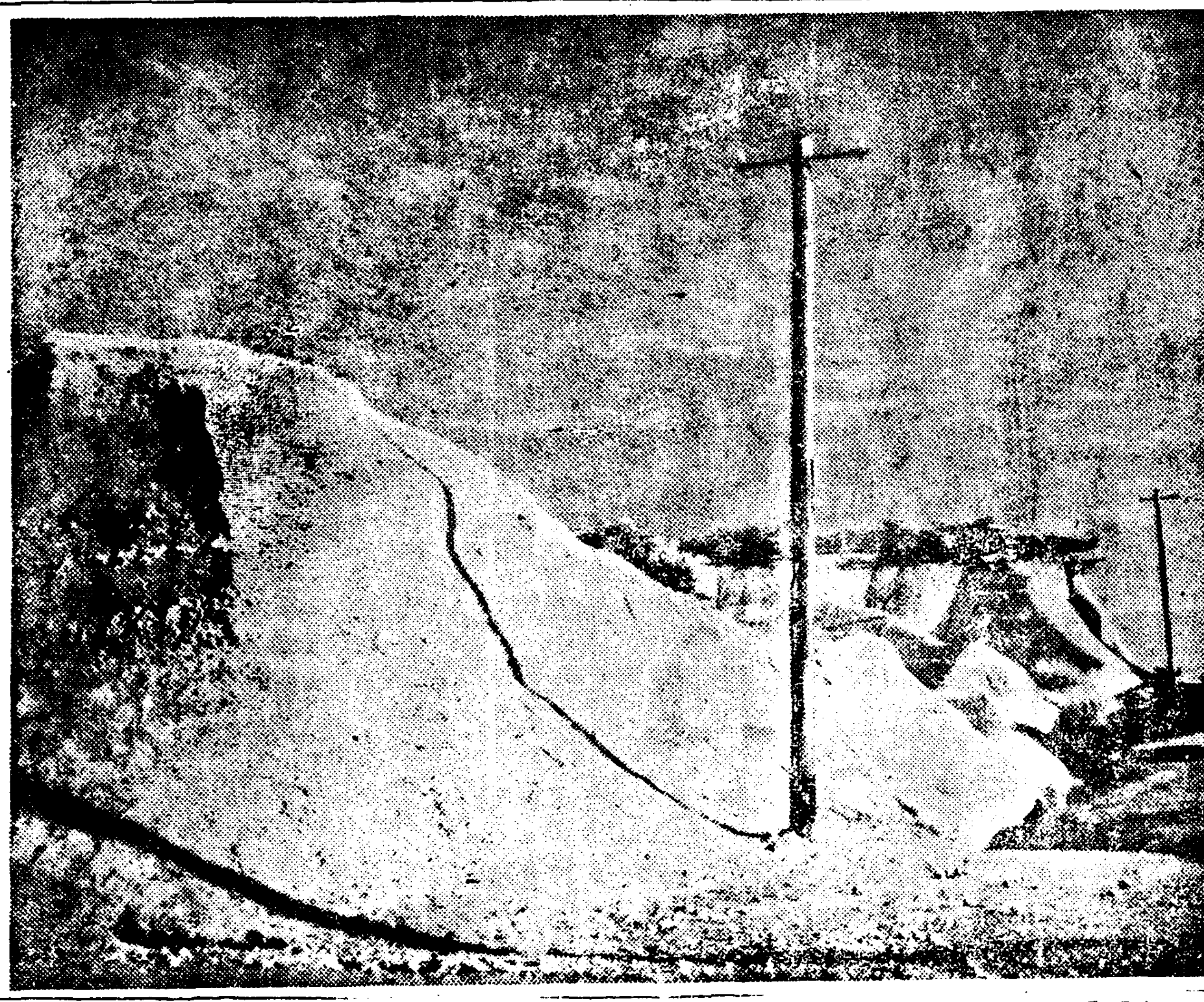
그의藝術의 世界는 生活과行動 以後에오는 純意識의世界이다。이것이果然 藝術의材料가될가? 傳統的觀念으로 본다면이것이藝術의世界가될수업다는것은 짐작할수잇다。그러나 어떤個人의意識(그것이病的일망정)을 眞實하게 表現하는것을 藝術行動으로부터拒否할 아모런理由도 우리는갓지안헛다。더욱이 그個性이 現代精神의症勢를 代表乃至發表할때엔 말할것도업다 그러면『날개』에나타난個性이란 어떤것이냐? 우리는 이小說以前에遡源하야 이小說의『나』라는 主人公을 가장通俗的으로 記述하야보자。

그는『그냥그날』을 그저 까닭업시 펀둥펀둥게을로고만 잇스면 만사가그만인』生活無能力者이다 그는完全히 自己안해에 依支하야사는 寄生植物的存在이다。그러나그의無能力은 다만經濟生活에잇서서만이 아니라 本能生活에 잇서서도 그러하다。그는果然 그의안해를 사랑한다。그러나 그것은 女性에對한 男性의 사랑이아니라 主人에對한 한개의 寵服이다。그는 안해의體臭를想像만하고도 몸을비비꼬나 그러나 한번그를征服하야보랴는勇氣를내지못한다。또그는 日常生活的水準上에서 사람과 交際할줄도 모른다。그는그의『몸과마음에 옷처럼』잘맞는 房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누어 外界와의 接觸을 杜絶하야다。그뿐만아니라 그는普通人間의 生活感情에조차 無能하다。열롱에서 自己안해(그는 아마도 카페女給이 아니면 妓生일것이다)와來客이서로 뎅굴고 弄談을하야도 嫉妬心을 느낄줄을 모른다。

이러케 無能力者이면서 그의 神經과 感受性은 面刀칼가티 銳利하다。그는 안해가 外出한틈을 타서 化粧臺아페 늘어노흔 化粧品甁들과 遊戲한다。『그것은 世上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나는 그중의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코에 갓다대이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하야본다。이국적인 세츄알한향기가 페로 숨여들면 나는제절로 스르르감기는 내눈을 느긴다』또는 돗뵈기잡란도 그의病的인神經狀態를말한다。『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초점에모아가지고 초점이 따근따근해지다가 마즈막에는 조히를끄슬르기시작하고 가는다란 연기를내이면서 드듸여 구녕을 뚫어놋는데까지 이르는 고 얼마안되는동안의 초조한맛이 죽고싶을만치 재미잇섯다』

男子를 醫師가診察한다면 무어라고나適當한、病名을 부처줄것이다。그러나 우리는 生活戰의 敗北者라고 記述하면 그만일것이다。그러나 萬一에 그가여기서꼿첫다면 李箱의 藝術은 업섯슬것이다。그가 背叛하고나온 現實을 意識안에서 다시금 咀嚼하는 過程이업섯드라면 그는 永遠히 救치못할 敗北兒이엇슬것이다。敗北을 當하고난 現實에對한 憤怒—이것이卽 李箱의藝術의 實質이다 그리고 現實에對한 冒瀆으로서 解消시키라하얏다。이現實冒瀆은 어떠한 形式을가지고 나타낫느냐? 그는 諷刺 위트 揶揄 誠笑 誇張 패러독스 自嘲 其他모든知的手段을가지고 家族生活과 金錢과 性과 常識과安逸에對한 冒瀆을 敢行하얏다。主人公과 그의안해와의生活은 決코正常한意味의夫婦生活이 아니다。다만 안해가暴君이고 男便이卑怯함만도아니다 到底히 常識으로 判斷할수업는 모든插話를通하야 안해의 權力은擴大되고 男便의地位는戲畵化되야 夫婦生活의 價値顚倒를實行하야다。

이것은 家族生活—더욱이 東方禮儀之國의 그것에對하야 冒瀆이되지안흘수업다。(끗)



褪色한風景

一秋窓斷想一
文學語一題 (下) ④

白鐵

『알엇네 자네의 그混亂된 語調를 通해서도 자네가 이야기하려는 意圖만은 아럿네—나는 눈섭을 찌프렷다 大抵 文學問題를 數學의 方程式과가티 풀어나가도 조흘까? 아니 나갈수잇슬까? 『바래리』라는 사나히는?—하나 A는 다시 第二의 『問題』를 아니 事實은 最初에 提起한 對話에 다시 도라가고잇섯다—그러타면 자네들이 過去의 그文學에 對하야 思想의 敬遠을 가지고 말하는것은 아무 意義가 업지안흘까? 過去의 그文學이라고 해서 그것은 맑스의思想을 그대로 說明해간것이아니고 人物과 場面을通하야 展開해간것이다 아닐까?』

『나는 여기서 過去의 우리들의 作品가운데는 그作品의 序詞가 반듯이 第三期的特徵에 對한 說明과 中間에서는 產業合理化에 對한作家의 解說이 作品의 重要한部分을 構成햇다는 事實을 一一히 들어說明하려고 하지 안네 하나 이런것만은事實이엇다고 언제나 指摘하여야 할줄아네…』

> **漢詩募集**
> 題…重陽
> 押…香
> 限十一月十日
> (薄謝進呈)

A는 疑惑스러운 눈으로 나의 얼굴을 『疑視』하얏다 하나疑惑함 바가업는것은 나의편이엇다 『一個의 思想에잇서 그것이歷史나 哲學이나 政治의 理論으로 表現되엿든것이 不知間 創作理論으로 交替되는때에 그것은 필경作家에게 不當한 점이 되엿다는 事實이네。말하면 그것은 作家의自由스러운 創造的意慾을 壓制하고 密封해버렷거든…언제나 個性的으로 具體的으로 創造的으로 살어나가야할 作家가 위선 自己個性을 죽이고 自己固有의 意慾을密封하고 思想그것이 가지는 槪念을想像하고 感覺하라고 할때에 그것은 作家의손발을 잡어매는 障害物바게될것이잇나?』

『하나 그것은 나로보면 맑스의 思想이 너무 巨大햇다는證據와 그와反對로 作家에게는그것을 堪當할만한 才能과 力量이 不足햇다는 證據라고 밧게 볼수업네! 말하면 思想은 그대로두고 作家는다만 『才能』과 技術만 닥거가면그만이 아닐까 아니그것이唯一한 正當한 길이아닐까?』

『자네말은 一見 조흔意見가트나 나로보면 亦是 作家가 思想아페 選擇을 當하는 境遇거든 내가말하려고하는것은 언제나 作家가 思想을 選擇하는 立場에서 作家가 思想을 自由롭게 주밀고펴고 온갓方面에 活用하여야 한다는것일세하나 過去와가튼關係를 그대로 두고는作家는 언제나 思想아페 머리를숙이고 한자리에 固定해잇서야되거든 무엇보다도 作家에게 不可한것은 한자리에 안저서 흘으는 내흘의 一點을 지키고잇는 態度라고보네 作家는 흘으는 물길을 따라 나날이 變할뿐아니라 想像과習力에 依하야 自由로 그물길을 東西로난우어보고 變更시켜보는곳에 그生命이 잇는것일세!』

『그러면 자네는 文學者가 一個의 思想을 固有하고 거기에 『依據』한 黨派性을 가진다는 事實은 어떠케 理解하는가?』

『만일 그것이 市民道德律이아니고 文學에對한 態度라면 問題가 이러케될것일세! 내가 作家로서 思想을 自由로 活用한다는 말은 그가 思想을 自己의個性뿐아니라 各場所와 各時刻의 事情에 따라서 얼마든지 特殊化하는것 따라서 그때에作家가 무슨 黨派와 傾向과 色彩를 가진다면 그것은 作家가 오갓色彩와 오갓黨派性을 一時에 가지여야한다고밧게 할말이 업슬것갓네。』

『오갓 黨派와 色彩를 가진다고。一身으로서 作家가 그런만흔 才能을 가질수잇슬까』 나는 勿論 A의顏色에 皮肉的인 表情을 못보는바는아니엇다 하나 나는 나의論調를 그대로 계속햇다。

『勿論 가질수잇다고보며 作家로서 그만한 度量과 氣魄을胸中에 갓지못하고는 眞實한 作家가 되지못할걸세!』

『아니 자네는 너무 나의말을 正直하게 드럿네 내가 하려고 한말은 一良心一 잇는作家가 一時에 오갓黨派와 色彩를 가저도 羞恥가 아닐까?못는말일세』

그의 主張과 나의말은 恒常 가지가 갈렷다 그가 언제나思想 그리고 갓차市民道德律에文學의길을 合流시키려는 態度에 나는 찬동할수가 업섯다

『그 그러면 君은 文學家가 언제나固定된 一個의 槪念을 墨守하라는말인가?』—

一漢詩一

題 白頭山 押 峰 桐岡 考選

佳作之二 京城府龍頭町一九一 金鍾漢

于天峻極巨靈峯
北望中原小岱宗
挽近星辰全頂萃
許多雲霧半腰封
印符降下輝千古
檀木叅差翠萬重
神鑿大池分派在
滿山風雨水溶溶

第二回 通俗醫學講演會

演士 와 演題
異常體質兒에對하야 李炳南
空氣와健康 崔義楹
花柳病에對하야 金應允

時日 十一月十四日午後七時半
場所 中央基督敎青年會舘
入場料 無料 =但場內整理料十錢徵收=

主催 駱山醫學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薔薇와祝祭 (五)

一隨筆一

安龍灣

사람의 눈은 하늘의 어여쁨 비체 멀지엇다。
아이들의 향그러운 손은 꼿이다。
그래서 神들의 花粉을비든칩다운 사람만남도다。
破壞된 墓地에서 生命의 새벽에 빗나오르는것이다。

그의 詩篇중의 한句節입니다 얼마나 讚美할만큼 아름다웁니까 우리네五官에 사모치는듯하지 안습니가。

나도 抒情의 花環을 짜겟소이다。외로운 靑春을안코 지내간時節의 歷史속에 순든고 착슬키우든 봄의 行進을〃하이메스〃의 音調가는 抒情으로 노래부르고 엮그럽니다。나의回想은 언제나 즐거움에 充溢된이야기입니다。꿈속처럼 甘味스러웁。陽光의 盛宴! 초록으로 흐르는 季節의 液汁。제비가 伴奏를합니다。靑年들의 希望에끌는 빰은 빨가코……少女의 에우얄의 날개쭝기는 입술의 感觸가 처저드는 여기에 抹消가다 新鮮한 피오네아의 노래가 글픈답니다。

憂하를 回想하는것은 가버린 첫사람과 消息과 모습그리운 서럽다기한 나는花環속에서도 情熱과 慕情을 잇지못합니다。이것은 오늘의 榮光된 로맨틱한 젊은詩人의 唯一한 자랑이외다 우리네가 사랑하야 마지안는江山 어머니품인 半島를 또故鄕인 圖像을 記錄하고간 빨간 直線—지내간날의 詩表를 어린가슴에 안으려는 닭지는 즐거움이어!

이러케 꿈꾸온지는 발서二年前이지옹、그때 ○라는 저ㅣ낼리스트에게 이花環에대한 말을 써보낸일이잇소이다。그마음의꼿에는 黑熱한 香氣이 흘릿습니다。하건만 無慘한 沈默의 報酬를 바덧슬뿐이엇지옹、그도 그럴게지옹、그뒤나는 藝術家의 靑春의날에 푸로그람을 設計한 創造에의 慾望을 못채우는 焦燥를안고 누구도몰울 눈물을홀리며 양르끄江畔을 逍遙햇기에요 어찌하야그花環은 더욱더 꼿과터부러 香氣피우지못햇나요。定處업는 巡禮의 길에서나 靑春의 新綠가든 滿開하는 香氣를 좋기리까。『앙리・뮈르제』가 슴귀여운小說、『라・포엠』의 女主人公〃미미〃가 刺繡를한 파렛트의 原色처럼 고흔 꼿에가 어느니하나도 비체 香氣가 석기지 안트지나의 지내간노래는 가슴의花園에 잠깐뿐입니다。이것은 情熱의 燃燒! 再建의 火花가…다시말하면 浪漫으로의 雄大한 리듬을못잡엇기 때문이지옵。

그러나 시포ㅣ레를알은나는 純粹한 抒情을 안는것만으로도 를信햇습니다。나는 孤獨속에서 巨人族의 偉大함을 차즈러외다。하며 지내간 花環에다 고요한 우숨을짓고 興奮을 부칩니다。이끄레가 새깜한 喪服을 입고 이태전의 이야기들이 안개속에 사려짐에 情熱의 빨간表章을 부치련니다。

薄倖한날의 純潔을 직히며 마음에 香氣를 채워두려오。그리하야 빗나오르는 나의날과 希望을 기다립니다。

新刊紹介

▲活泉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十錢

▲復活運動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五丁目七九 復活社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定價十錢

▲女論 十月號 發行所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三一女論社 振替京城八一二番 定價十錢

▲邦文타임스 第七十九號 發行所 東京市京橋區寶町一丁目二ノ一邦文타임스社 振替京城六二六九八番 定價一部五錢

▲朝鮮語學會査定한글마춤법통일안에對한批判 朴勝彬著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研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正音第十六號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研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京城商工名錄 昭和十一年版 發行所京城府長谷川町一一 京城商工會議所 定價五十錢

▲國民法律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定價十五錢

▲京城府立圖書舘報 第七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五 京城府立圖書舘 定價一部一錢

「조선어표준말모음」(4)

첫재、가튼말(同義語)

(一)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ㅃ과 ㅊ의 通用
【ㅃ을 취함】
물뿌리(名)煙竹吸嘴
물추리

●ㅅ과 ㅆ의 通用
【ㅅ을 취함】
슴베(名)鐵柄中揷入部分
슴베
스메
【ㅆ을 취함】
씩(名)하나씩
식
쏘가리(名)鱖
소가리

●ㅅ과 ㅈ의 通用
【ㅅ을 취함】
송곳(名)錐
송곶
첫(名)齒
젓
【ㅈ을 취함】
거무죽죽하다(形)薄黑
거무숙숙하다
낮(名)晝
낫
빚(名)債
빗
젖(名)乳
젓
흐죽하죽(副)不誠實貌
흐숙하숙
흥정(名)價格歸定
흥성

●ㅅ과 ㅊ의 通用
【ㅊ을 취함】
꽃(名)花
꼿
꼳
낯(名)面
낫
낟
닻(名)錨
닷
닫
돛(名)帆
돗
돋
몇(名)幾
멧
멷
빛(名)光、色
빗
빋
살갗(名)皮膚
살갓
살갇
숯(名)炭
숫
숟
옻(名)漆
옷
옫

●ㅅ과 ㅌ의 通用
【ㅌ을 취함】
겉(名 表面)
것
걷
곁(名)傍
겻
겯
끝(名)末
끗
끋
낱(名)個
낫
낟
머리맡(名)枕邊
머리맛
머리맏
밑(名)底
밋
믿
밭(名)田
밧
받
볕(名)陽
볏
벋
샅(名)兩股間
삿
삳
솥(名)鼎
솟
솓
숱(名)量
숫
숟
팥(名)豆
팟
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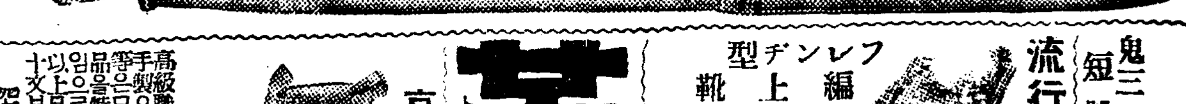
●ㅅ과 ㅍ의 通用
【ㅍ을취함】
놈팽이(名)男의賤稱
놈생이

●ㅅ과 ㅎ의 通用
【ㅅ을 취함】
사처(名)下處
하처
하치
선반(名)棚
헌반
설마(副)설마그러랴
헐마
세다(動)數
헤다
혀다
수세(名)休書
휴서
수지(名)休紙
휴지
심줄(名)筋
힘줄
【ㅎ을 취함】
혀(名)舌
서
현판(名)懸板
선판
혓바닥(名)舌上面
섯바닥
휘파람(名)嘯
쉬파람
휫바람
수파람
흉(名)痕跡
숭
흉내(名)模倣
숭내
흉보다(動)誹
숭보다
흉잡히다(動)被謗
숭잡히다
흉하다(名)凶
숭하다
흉허적(名)欠闕
숭허적
흉허물(名)欠點
숭허물
흉헙다(形)不美
숭헙다
힘(名)力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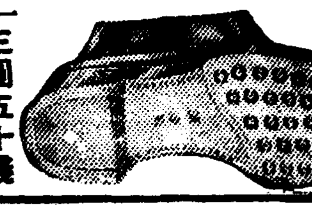
●ㅆ과 ㅋ의 通用
【ㅆ을취함】
썰물(名)退潮
켤물
【ㅋ을취함】
물켜다(動)引飲
물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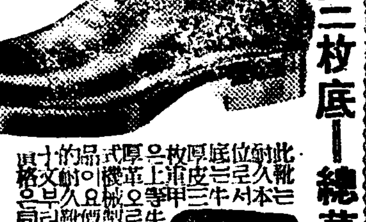
●ㅈ과 ㅉ의 通用
【ㅈ을취함】
건잠(名)害蟲名
건짐
조각(名)片
쪼각
집게(名)鉄子
찝게
집다(動)拾取、挾
찝다
【ㅉ을취함】
째(名)第次(첫째、열두째)
재
쪽박(名)小瓢子
족박

絕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產ー大販ー市價의半額
定價一圓의萬年筆五本進呈



靑年訓練總革靴◇
個年以上 耐久


鬼三枚底ー總革學生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 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フレンチ型
編上靴型 フレンチ型 四圓二十錢
本品은絕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全部手製品이오 上等總皮底
先エナメル付一足 五十錢高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高級職工의手製品으로原料의最良品을精選한것 十圓以上品이 一足十文半까지同價
深型靴 五圓五十錢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ボタン付先付黒エナメル付
短型靴 四圓五十錢

革靴一足 萬年一本式進呈 ㊎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化學의精華人巧의妙) 新發明 一足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連載野談 (一五三) 〔不許轉載上演〕

布衣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죽기소원(十二)

그 창두가 부당상자 두껑을 열어서 한여때 고히노코 상자안에 들어잇는 전립(戰笠)과동다리등 전복(戰服)일습을 차려로 꺼내노흔뒤 리선전관을 향하야,

「어듸 입어 보시지소사。풍채가어찌 되엿삽는지…。」

하며 먼저 동다리를 집어들고 엽어섯다。

리선전관은 벙글, 벙글 웃는 긔색으로써,

「허허。하두 오래간만에 입게되니까 어찌 몸에 걸치기가 엄떨떨하구나。」

하면서 두팔을 뒤로 제켜벌리고 동다리소매에 두팔을 꿰엿다。

이때 창두는 얼는 아프로와서 끈을 매고 겨대를 들어돌려 매인뒤에 두손을 아프로엽이고 서서 아플 한참 바라보

네모가 번듯한중에도 약간 기름한 얼굴。배꼽까지 내려온 구레나룻수염。옷독한 코ㅅ등 부리부리한 두눈ㅅ등 시원스럽게 려진이마등。그풍채이 장대한 사람으로써 전립, 전복을 가추어 입고 떡 버틔고서니 그늠늠한 풍신이 진실로 무사(武士)의풍도가 보이엿다。

그 창두는 리선전관의 풍신과 위엄이 평복을하고 잇슬때와 전복을 입은때와 아주 딴판임을 보고,

「허허。씨도적은 못한다드니그말이 꽉 올쿤!。」

하며 속으로 리선전관의 그늠늠한 풍신을 무한 탄복하얏다。

그리고 다시 공순한 태도를 지으며,

「나리마님!、여러 마마님께보내시는 그돈은 저저히 잘전해 드렷습니다。그리하압고그 여러마마님의 말슴을 듯자오니 각각 대감께 간절히 말슴을 엿준바 윤승상대감、신부원수대감。대대감께서 모두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오 이왕 선전관으로잇든 이아무개로군하시고 나리마님 한짜를 부르시며 힘쓰시겟다는 말슴을 하시면서 래일이라도 그 세돈대감을 죽 한번 차자보시는것이 조타고 말슴하시고 소인으로하야금 그뜻을 나리마님께 엿주라는 분부가게시오니 소인생각가와서는 먼저소인에 대감마님을 오늘저녁때라도 뵈압는것이 조홀가 합니다。」

하는 리선전관의 기색을 살피엿다。

「아아。그래。그럼 네말과 가티 너의댁 대감께 오늘 먼저가 승후(承候)를해야겟군。」

하고 리선전관은 군복을 입은채 군복자락만 뒤로재치고 그대로자리에 안젓다。

그런뒤 겨레서 정신이 얼떨떨한 긔색으로써 서잇는 이철이를 향하야,

「너。빨리 마방(馬房)에 나가서 안장지은 말한필을 끌어내게지고 오라고 일너라!」

하며 리선전관은 오른 손을들어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당대대를 틀면서 큰 기침으로써 뱉내는양을 보이엿다。

이때 이철이도 그 창두가 군복을 지어가지고 왓슬뿐만아니라 리판서를 한나보라는 말을듯고보니 속이는것은 아니거니 생각하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써 마방을 향하고 달려갓다。

다가 뒤으로 돌아서서 다시뒤품을 살피고 그다음에는 아프로 다시와서 두무릅을 단정히 꿀코 안저서 두손으로 동다리 기리를 이모저모로 잡어땅겨보고일어서면서,

「전복의 품새와 기리는 꼭알맛습니다。」

하고 리선전관의 전체를 한번 더 유심히 살피엿다。

그런뒤 전립을 손으로 공순히 들면서

「전립을 마저 써보십소사。」

하고 두손으로 전립을 밧들어 리선전관을 주엇다。

리선전관은 한손으로 그 전립을 바더들고 먼저 그 얼골이 들여비치도록 찬란한 금파갓끈을 한번 만지고 그 다음에는 전립꼭대기에 꼬친 나불나불 흔들리는 공작미(孔雀尾)를만저 본뒤에 두손으로써 전립 력자(戰笠纓子)께를 쥐고 전립을 머리에 고이 썻다。

그런뒤 잠으로 감개 무량한 듯이 그 창두를 바라보면서,

「웅지 서울러 보이지나 아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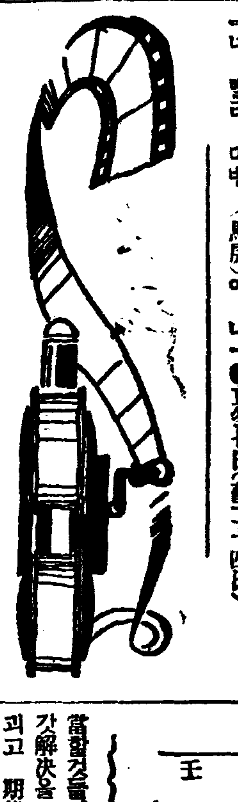
하고 두팔을 느려친채로 장승과 배를 아프로 한번 내미럿다。

「아니올시다。아주 훌륭하십니다。」

하며 리선전관의 풍신을 우아래로 훌터 보앗다。

원래 리선전관은 그 키가칠척、허리통이 한아름。더더구나

曆 十一月六日(金) 陰戊戌九月大(廿三日) 壬辰·水 鬼·破
●祭祀에宜함
●霜降 二十三日(初九日)
●立冬 七日(廿四日)



新劇과興行劇
主로劇硏에向한注文 ❶

申孫吉

朝鮮演劇이 탐스럽게 피여보지 못하는것은 毋論 劇團自體의 主觀的條件과 客觀的要因의 不利가 가저다주는 畸形的發展의 結果겟지만은 이것이야말로 過渡期朝鮮이란 荒蕪地벌판에서 떨고잇는 앙상한 時代的標本으로서 엄살만하고잇슬것이 못되는 實로 朝鮮演劇文化發展過程에잇서서 尋常히 看過시킬수업는 하나의 特徵的性格의 一面인것이다。

◇

한동안 新劇團體에서는 慘憺한論陣을펴고 일어서서 興行劇團을 향하야 呼喇叭을 불어젓고 興行劇團에서는 險惡한 感情을 참을수 업다하야 新劇團體를향해서 挨擊砲를 쏘앗다。

그러나 興行劇團은 舞臺實際의 經驗은 잇서도 社會意識을 두려서 認識하지못햇든탓으로해서 「조흔演劇」을 못하는채로잇든것이요 新劇團體는 時代理念은 힘잇게 把握햇스되 舞臺實際의 經驗이 업섯든 빌미로해서 역시「조흔演劇」을 못하는채로 잇든것이다。

이래저래「조흔演劇」을 못가진 朝鮮觀衆의 마음은 너무도 寂寞하다。

◇

演劇에關한 千마듸文學的理論도 조치만은 그보다도 한가지의 綜合的魅力이 잇는 舞臺의 藝術的實際를 보여 달라는것이 一般의 時急한要求다。

言보다 行이다。言뿐만의 虛張盛勢로해서 시방 朝鮮은 惡夢을 이르킬地境이다。

出衆한 技術的人物의 出現이 업시는 少年時代에잇는 新劇團體가 壯年時代에 잇는 興行劇團을 征服할道理가 업슬것이요 興行劇團을 支持하고잇는「絶對多數의 傳統的觀衆에의 打開」는 空想에그칠것이다。

眞正한 演劇的活動은 먼저大衆的 基礎우에다가 뿌리를박어야될것임은 毋論이다 同時에演劇의 社會的任務란것은 반다시爆彈을 맨들기爲해서뿐 잇는것이아니구 업서저선못될傳統을 간직하는하나의 알들한 倉庫로써 야될 時節에 이른것도 생각해야될것이다。

◇

여기에서 우리는『創作劇의새로운生命』을 發見하는것이다。

◇

京城에는 한번도 와본일이업는 興行劇團이 全鮮에 數百으로 그數無慮 二千餘名을 算한다。그러나 이러한 實例現狀을 모르는사람들에게는 實로 驚愕을 禁치못할事實인同時에 그네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問題圈外에서 安堵해온것이다

勿論 나는 興行劇團의 今日의演劇行動을 全的으로 承認하는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이아모리歷史發展에依한 時代的淘汰를 當할것들이라하드래도 우리는 오히려 갓解決을 時間에가 맥기고 컨을괴고 期待되는 宿命論者가 아니기때문에 언제라도 興行演劇行動을 問題삼지안코 마지안케되는것이다。

혹히 京城을標準으로 또는京城을中心으로 판을벌코잇는新劇運動者들이 京城은 朝鮮의代表가될는지몰라도 朝鮮의 全部가 京城이 아니라는 至極히 平凡하면서도 嚴肅한事實을 정말로 認識한다고 할것가트면 그러큰朝鮮全幅에다가 시커먼날개를펄처더구잇는 興行劇團의 存在가 무엇보다도 至大한關心事가 아닐수업슬것이니 萬一그들의 存在를問題圈外로 追放시켜버리고 默過自慰한다고 할것가트면 그야말로演劇의 社會的考察을 떠듬어보지도못한 輕率한 態度바게 아모것도 아닐것이다。

興行劇團의 오랏放縱은 散動向이 容恕치 안호려니와 熾熱한時代意識에 頹沛된 落魄이 마저 必然的沒落의 悲劇的前途의 豫感을 自覺하지못하고오히려 衆天的夢幻속에서 社會的 爲無와 個人的快樂을 流動시키고 잇슬 뿐이니 實로 悲嘆의 度을 지나 憐憫의 情을 禁치 못할 痛恨至極한 事實이다。

그러나 그네들을 團結하고 容納하고잇는 諸現實과 그들을 歡呼하는 絶對多數의 民衆이 잇슴을 이저서는 아니된다。問題는 여기에잇다。이 絶對多數의 民衆을 버리고서는 演劇運動의 社會的革命도 喪失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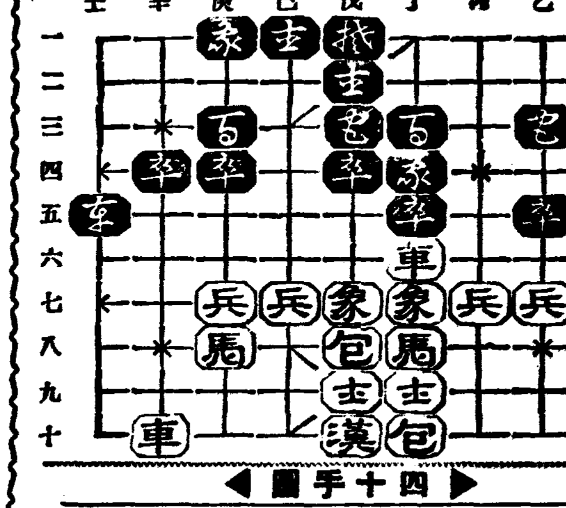
、毋論 나는 演劇運動과 劇藝術樹立運動과를 結局 하나인채로 둘로 나누어보는 立場에서 하는 말이거니와 그것은 劇藝術樹立運動은 演劇以前에 屬하는 問題요 演劇運動이란것은演劇以後에 屬하는問題이기때문이라는것이니 그實踐上에잇서서兩者는서로 두드러진差異에서 엄청난 距離를가저올것으로써이다。

여기서는다시 或은 그러면朝鮮에「劇」이잇느냐 업느냐하는問題로도 도라가겟지만 실상은「技術問題」에로 떠러지고 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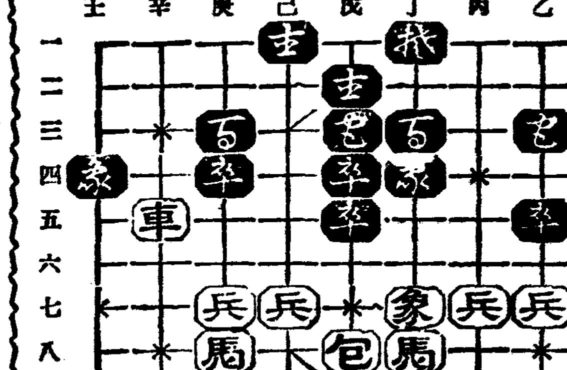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四)

楚先手 李在鳳 對 漢一手 盧世楨

◀第三十手圖▶



◀第四十手圖▶



丁六車ㅡ己六 丙二[illegible]ㅡ壬二 戊七象ㅡ丙四打卒 辛二[illegible]ㅡ丙四打象 己六車ㅡ辛六

丙二[illegible]ㅡ丁一 辛六車ㅡ辛五 壬二[illegible]ㅡ辛五打車 辛七車ㅡ辛五打車 丁三[illegible]ㅡ戊三

五日(木曜)

◇午後六時 獨唱과器樂獨奏 바리톤獨唱 美浦三郞 一、第一高普校歌 二、荒城의月 빠이올린獨奏 鄭熙錫 一、라ー고…헨델作曲 二、자장가…하으사ー作曲 피아노獨奏 尹璟善 一、幻想曲 二、봄…그리ー그作曲 一高普樂部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潮汐이야기〃
◇同七時三〇分 講演 淑明女高 李廷紀 〃生活에對한東西人의美點〃 鄭錫泰
◇同八時 音律 靈山會相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燦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趙載福 杖鼓 李章夏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最新手術法公開〃全三景 放送劇新人會
◇同九時 執杖歌 一、執杖歌 二、平壤歌 三、제비가 四、휘모리 尹一枝蓮 朴玉姬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音樂物語
◇同六時二五分 山田開發講話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常盤津
◇同八時三〇分 (大)抒情組曲
◇同八時五五 (東)浪花節

六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金두거비」 趙恒植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 文豪의女性觀 (十)「루르케넬호의女性觀」 李軒求
◇同三時一〇分 (東) 敎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이야기 「周時經」 辛鳳祚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培花女高 李德鳳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 (一) 〃國民精神作興週間을當하야〃 京城府社會課長 金永禪
◇同八時 歌詞 一、白鷗詞 二、黃鷄詞 金蕉紅 金蘭珠 金永根 金一宇 大笒 杖鼓
◇同八時三〇分 夢金浦打令外 一、夢金浦打令 二、[illegible] 三、楚漢歌 四、山念佛 大笒 金玉仙 金永根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 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 (東) 說敎節
◇同二時 (京) 家庭講座
◇同六時 이야기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 齊唱
◇同八時一〇分 (東) 講演
◇同八時四〇分 (東) 獨唱과管絃樂 獨唱 伊藤敎子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가에라노·코메리

七日(土曜)

◇午後零時五分 (東) 輕音樂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織物의常識』 小暮正雄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任哲宰 一、(齊唱)진달래 二、(同)우리의옛집 三、(獨唱)장미꼿 四、(齊唱)봄 五、(獨唱)나의집 六、(齊唱)꿈나라의꼿 七、(獨唱)가을밤 九、(同)자장가 伴奏 獨唱 宗敎童人會 金貞愛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二) 經學院司成 金完鎭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卓天邊 二、唱劇調…흑기畵像 그리는데 鼓手 [illegible] 流行歌 姜弘植
◇同八時三〇分 DK管絃樂
◇同九時 古談 福會奇緣 金瀏雲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어머니時間
◇午後〇時五分 (東) 輕音樂
◇同二時 (東) 婦人時間
◇同六時 (大) 幼兒를위한옛날이야기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어린이와家庭의밤
◇同九時 時事解說

時日 十一月六日부터 (五日間)
場所 市內東洋劇場에서

歌劇『興甫傳』公演

總指揮 李東伯
演出 丁貞烈
脚色 宋萬甲

出演 金昌龍 吳太石 韓成俊 趙相鮮 金任壽 金容承 林小香 丁南希 金世俊 外多數 朴綠珠 丁元燮 姜太弘 金演洙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入場料 階上七十錢 階下五十錢

「興甫傳公演」(十一月六日부터五日間東洋劇場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入場料 階上九十錢 階下七十錢 ─ 七十錢 五十錢
一人一枚

目下景品附特賣中
左記洩れなく進呈
樽詰(十六立)에 特撰クリーム・ホーサン石鹼三個入 一函
罐詰(八立)에 特撰クリーム・ホーサン石鹼三個入 一函
壜詰(二立)에 特撰化粧石鹼、 一個
一、區域 朝鮮全道
一、期間 昭和十一年十月十五日より、仝年十二月廿日まで
香川縣小豆島 丸金醬油株式會社
マルキン醬油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자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리를압흘때……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M45
L3
今日의 군것질은 マクニンゼリ다
本日 回虫에 マクニン데이ー
잘듯고 먹기도 쉬웁다

	錠劑	ゼリ
一回量	.80	.20
	.75	.50
	1.35	1.00
		2.00

大阪市東區道修町・東京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藤澤友吉商店
[illegible]

昔も 今も
效能で賣れる 七ふくひえぐすり (시찌후꾸 히에구스리)
效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좋게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藥價 一週分 廿五錢 半週分 [illegible] 三週分 [illegible] 五週分 [illegible] 一個月 [illegible] 送料 十錢 海外 四十錢
本家 七ふくや伊藤長兵衛
大阪高津表門筋
振替大阪九七三・電南七二九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好評! 滿天下의「ポンプ」界를 斷然리ー드하고잇다
全國到處에信用잇는機械、金物、ポンプ店에잇슴
實用新案216835號 [illegible]
注意!
今回特許局의查定에依하야(實用新案第二六三一九五號) 과가리川本式이라는字句도商標로公告되엿사오니 從來製作所名에는全部「川本式」이라고明記하엿습니다
眞正한「川本式ポンプ」는 川印ポンプ는製作을禁止하엿습니다 印外에는업습니다
名古屋市中區大須一丁目
川本製作所
特約店 岡谷銅物部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四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十分
◇쨘·미유라·코렌·뫼라 主演 ö·ö·ö 超特作映畫
第二情報部
國際스파이戰의最高傑作映畫 迫力과延力의連續、奇奇怪怪한스파이와스파이의暗中飛躍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畫 메이레이、라루후베라미 主演
低空爆擊
世界平和의噴火國의動亂의中國에播起되는大空中戰!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畫 原作 長谷川伸、主演高田稔 監督 牛原虛彥
掏摸の家
─次週映畫─ 高田稔主演의金最近의傑作映畫 沈默의凱歌、靑春萬才
(近日封切) 黃金、大鵝、사랑의彈丸、小公子、무엇들、海賊뽀탈트、國境의거리、뿌라오二千兩 名優
團成社

朝鮮日報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一八九七番

平南에도爭議爆發 一千五百件突破
道에서는管下各郡警當局에 不德地主取締를嚴命

【平壤】 금고미증유의고농는 올해의 대한발로인하야 농작물은 여지업는 흉작이어서 농민들의 공과금은 못지안코도 훌륭하여서 할수잇거니와 흉작이 원인이되어서 평남도내에는 소작쟁의가 속발하고잇는 우려할 현상이전개되고잇다

시월말일까지의 소작쟁의는일천오백오십여건에달하여무풍지대(無風地帶)라고하든 평남도내를 뒤흔드러놋코잇다 도당국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사이에서 쟁의방지를 알선하고잇는이때에 일부의 소위부재지주(不在地主)들은 욕심이 땅보다더두텁게도 리재농민에게향하여 조곰도 소작료의 체감이업을뿐아니라 소작료를 납입못하는소작인에게는 차금(借金)으로받수워 굴리까지부려어 종수를하려는 언어도단의 악적행동을 하는지주까지 무수히 발견되여잇고 또조세공과(租稅公課)를 소작인에게 부담식히는 뻔뻔한지주도만허 소작쟁의는 갈수록 격화될현상에 빗치어 평남도당국에서는 무법횡포한지주들은 용서업시 취체하라는 통첩을수일전 관내각경찰서 군당국에 발송햇다한다

漢川의初氷

【漢川】 평남평원군한천은 지난 이일 갑작이날새가 추어 금년 들어처음보는 초빙을 보엿는데 면민은 김장수확에밥분중 금년은 래변에업는 대한재로 이앙불능한폐답에 채소를 만히심엇는데 김장철에들어 무밋한포대 삼십전 배채한포기에 최고사전 이라한다

嚴冬압둔五百災民에게 本社救濟品配給
그들은깃뿜과感激에넘처 本報三浪津支局經由

【三浪津】 본보삼랑진지국에 도착된 구제의류등은 본지에 발표된 예정대로 의류 약품점과 식료품 백여점을 생림(生林)면 천여명재민중 오백여 재민에게 배급하게 되엇는데 해외동포의 피끌는 동족애(同族愛)에서 온 구제품이란것을 괴자가 알리자 상봉을 알혜두고 옷이업서서떨고잇든 그들은 깃봄과 감격에 넘치엇다 그러나 이번배급된 구제품이 상당하만헛스나 구원을 바들재민이 원악다수하여서 그들의 만족을주지못해 배급한지국원은 미련을남기고 도라왓다

感謝狀과謝禮 本報支局에殺到

【三浪津】 전과와 가티 구제품을 배급한바 감동리 대표자가 다수히 본보삼랑진지국을 래방하야 본사와 사해(四海)의 여러의연자제씨에게 감사와사례를 올리여달라는 부탁이잇섯는바그 대표자들은 다음과갓다

▲三浪津驛前 朴士俊▲三浪津一 玉▲三浪津栗洞 成戊章▲生林僉世里 裴俊伊▲僉世夜學校代表 許 ▲三浪津公普校長 兒 ▲面長 裴鍵煥▲生林防水組合長 嚴寅俊

生林罹災民에게 救濟品配給 (三浪津)

衣類、藥品等配給
高城罹災民에게도 本社高城支局經由로

【高城】 일즉 풍수해로 인하야 가장집물을 류실하고 치위는다 처오는 이때에 귀아선상에서 헤매며 괴롱책이 막연한 고성지방에서는 본사 高城支局을 경유하야 재산차로 발송한 각지의 온정어린 동정품 의류와 약품등을 가리 재민에게 배급하엿습으로 일반이재민은 그눈물겨운 동정품에 감사를 늣긴다고한다

歸航中의千壽丸 蘇聯漁夫救助

【元山】 북해도소준(小樽)에서 탄을실고 원산항에들어온 권목상사주식회사(栃木商事株式會社) 소유선 천수환(千壽丸)은 지난 이일 『우라지오스톡』 동남방 약 십해리 부근에서 발동기고장으로 표류하고잇는 『쏘비에트』 발동선을 발견하고 그어선을구조하 잇는 소련방어부네사람을 구조해가지고 삼일아침원산항에 들어와잇는데 지금원산서에서는 그들 어부를보호중이라고하는바 서로 언어불통으로 원산서에서는크게 머리를 알코잇다한다

馬山署의怪青年 意外前科四犯

【馬山】 지난달이십칠일 마산서(馬山署)사법형사 전、고、송촌(田、高、松村)삼씨는 부내 오동동(午東洞)근방에서 거동이 수상한청년을인치하고 약일주일동안 엄중취조를하여온바 이제 범인의 진술한바를들건대 그는원적을 진주(晉州)에두고 주소부정으로다니는 전과사범박삼세(朴三世)(二七)로서 약이주일전 저녁에 부내원정진흥상회(振興商會)안주인이 만정부근을 통과할지음에 머리에꼬잣든 금비녀 시가약육원짜리를 빼여가지고 도망한것을 필두로 다수의범죄사실을 자백하엿슴으로 방금계속 취조중이라한다

藝術青年糾合 放送藝術研究會 新興關北에誕生

【淸津】 명춘사월에 개국을압둔 『쩨ㅣ뻬ㅣ씨ㅣ케(JBCK)』의관할구역으로 청진을 중심으로한 함북지방의 예술청년(藝術靑年)들은 예술연구와 보급을목표로 청진방송 예술연구회(淸津放送藝術硏究會)를 조직하엿다 지난일일오후두시 청진체육회(淸津體育會)의상에서 발기인대표 송덕룡(宋德龍)씨 사회하에 동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통과 회원구성 리사선거와 사업계획에대한 협의를마치고 동 오후여섯시 산회하얏는바 이로 선거된 각 간부는 다음과 갓다는데 일반은 동회의전도를축복하고잇다

會長 李應貫 理事長 宋德龍 理事 朴壽福 洪鼎燮 尹相烈 金大鳳 金興福 朴松友 金光鉉 李貞石 張洪彰 朴仁順 李長憲(一名缺) 部署 一、企劃部長 朴壽福 庶務金興福 財政朴松友 社會朴壽福 二、演劇部長 尹相烈 三、文藝部長金大鳳 四、音樂部長 金光鉉 五、美術部長張洪彰

地方人事

▲山田勝雄氏(慶北警察部高等課長) 本社新義州支局來訪
▲金晟洛氏(咸鏡南道法院主任) 新任人事次本社咸興支局來訪
▲朴熙昌氏(淸州警察署長) 來訪
▲金榮一氏(淸州地方法院) 本社淸州支局來訪
▲田文奉氏(前金川警察署司法主任) 新任人事次本社金川支局來訪
▲藤原久雄氏(馬山警察署長) 新任人事次本社馬山支局來訪
▲鳥田市藏氏(前宜川警察署長) 新任人事次宜川支局來訪
▲稻田正雄氏(前宜川警察署長) 新任人事次同上

실업손말하고 被殺當한男子

【淸州】 지난사일 충남조치원(鳥致院)에서 차룡이(車龍伊)(三…

본명 안봉연은번 구재복씨의 집에서 …… 조사중이라한다

黃海道의旱災被害 八百五十餘萬圓
被害面積十二萬五千餘町步 農民의生途去益暗澹

【海州】 황해도지방에는 때를 맛추 근래에드문 대한발로 말미암아 농경의 폐답으로 그해가 적지아니하야 도당국에서 그외에 직면한 일부를 구출코저 대작(代作)등을 장려하엿스나 그도 뜻대로 되지못하여 그피해가 실로 놀라운 수에 달하고잇다한다 일방은 루보한바이어니와 요지음 황해도 농무과(農務課)에서 조사한 피해상황을 보면 도내십칠개군전반에 공하야 해면적 십이만오천여정보에 피해예상고는 무려 팔백오십만구천여원에 팔한다고한다 즉 수도(水稻)의 피해면적삼만 삼천일백구십구정에 그피해예상고륙백륙십구만삼천이백사십일원을 필두로하야 두류(豆類)사만오천륙백팔십삼정보에 일백십만오천팔백륙십팔원 속(粟)삼만천륙백오십팔정보에 삼십칠만사천이백이십오원 소맥(小麥)삼만여정보에 삼십일만사천팔백팔십팔원 대맥(大麥)일천구백여정보에 이만팔백칠십칠원으로 피해작물(作物)별로 피해액을보면 다음과갓다

被害作物	被害高
水稻	六、六九三、二四一圓
粟	三七四、二二五
豆類	一、一〇五、八六八
小麥	三一四、八八八
大麥	二〇、八七七
計	八、五〇九、〇〇七

旱災끄테稻熱病 被害百七十萬圓
—엽친데덥치기格—

【海州】 한해(旱害)로 면적은 삼십만구천여정보에그피해액은 무려팔백오십만원에달하는 대한재인데 그피해가 …… 황해도지방에 십여만원에 달한다는바 엽친데 덥치기격으로 한해(旱害)뒤에 닥처온 도열병(稻熱病)의 만연으로인하여 재민의생도는 더욱 암담한가운데잇다한다 즉 황해도 농무과(農務課)에서는 지난팔월하순으로부터 구월하순까지의 두달동안에 만연한 도열병(稻熱病)의 피해상황을 조사중 요지음 그조사가완료되엿는데 그에의하면 피해작물(作物)은 수도(水稻)로 피해액은 일백칠십칠만원에달한다는바 피해액을 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郡別	被害額
海州	四一、三四〇圓
延白	一、五五一、八八八
金川	二〇、四〇〇
平山	一一、六〇〇
甕津	一九、一〇〇
新溪	一、六〇〇
長淵	二五、〇〇〇
松禾	一五、二五〇
殷栗	三七、〇九五
安岳	二一、四〇〇
黃州	一五、五〇〇
鳳山	八、八二〇
瑞興	八六四
谷山	五三〇
計	一、七七〇、三八七

安東縣에火災 住家三戶燒失

【安東縣】 지난삼일오전이시십 …… 방금계속 취조중이라한다

五千餘會員가진 借地人組合解散令
六日에緊急役員會를開催討議 그推移가極注目處

【平壤】 시가의발전을따라 평양부내의토지는 무서운형세로 그값이 노파지고잇고 여기따라 욕심이만흔지주들은 땅을고가로사가지고는 그대지우에집을짓고사는 차지인내지 차가인에게 십배갓가운고가의차지료를 무리하게요구하기때문에 무리한 지주에게 정당하게싸와서 생활선의안정을 엇고저 우호적순모양으로 차지인조합(借地人組合)이 조직되여 그수가 이십개가가히까지 달햇고 다시 차지인조합의운동을강화하고저 차지인조합회(借地人聯合會)까지 결성되엇든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서성리차지인조합원 임상술(任尙術)이가 지주 오경수(吳京洙)에게 억울하게도 주택을빼앗긴것을 원한으로때심하고 급기야지주오경수에게 중상을가한사실이잇자 평양서고등계에서는 차지인련합회장김양하(金洋河)씨를 일전에호출하여다가 충연히 차지인조합의 해산(解散)을요구하게되엿스므로 륙일 차지인련합회사무소에서 긴급의원회를소집하고 여기에대한 태도를결정하기로되엿다 파연 이의원회에 차지인조합의해산을 정식으로결정하게 될지 또는 보류하게될지 주목을 끌고잇다

여기에대하야 차지인조합련합회장김양하씨는 진중한태도로 다음과가티 이야기한다

金洋河氏談

수일전 평양서고등계형사에게 이집에차저와 경찰서로가자기에 갓더니 돌연히 일주일이내에 차지인조합전반단체에 대한해산을 이야기합듸다 그러나 나로서는 독단적으로해산할수도업서 의원회에 가부를무른후에 답변하기로약속햇습니다 해산을 하라는 중요한리유는 임상술이가 경찰서에 구금된후 임상술의수입으로 살든노약친척구가 긔한에떨고잇스므로 엇던한좌석에서 가련한 임상술의가족들을 우리차지인조합원들이 적극구제를해야되겟다고 비공식으로 이야기를햇답니다 그것이 당국의귀에들린거때문입니다 차지인의비애를 가련히하고 서로위로하고 살자는의미에서 조직된 차지인조합을 해산하라고 강요할때에가 어떠햇는지요 운운

馬山支局에서도 救濟品을配給
—衣類와藥品等等—

【馬山】 지난여름의홍수시재에로 본보마산지국내에서는 본지를 경유하야도착한 재외동포의위문품 의류와 약품등을 파산지내 각처재민(罹災民)들에게 …… 배급하엿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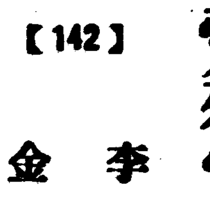
三層으로嚆矢 船橋公普近近着工

【平壤】 평양부내 선교리공립보통학교(船橋里公普)는 십일월부터 공사에착수할터인데 평양초등학교교사로서는 최초의시험으로서 삼층교사를 만들기로결정햇다 초등학교교사로서 삼층은이것으로 효시로서 토지난에 머리를 알코잇는 평양으로서는 정말시험적이라하나 금후부터는 이층주의를 버리고 점차고층건축물에 매진하는 제일보로도 볼수잇서 과연초등교육의 교사가 삼층이라도 관계치안을는지는 아프로 적지안은 관심으로 그결과를 주목케된다

行政區擴張案 來月府會에上程

【平壤】 평양부의시가지계획은동부에서 도경유、부에자문되여와서 십이월부회를 개최하게되엿거니와 시가지계획과 병행하는행정구역확장안도 동시에부회에 상정키로되엿섯스나 보안、내무과장등 부간부들의 교체로 인하여 안의검토가 예정대로진행되지안어 자문안과 동시에제안할수업게되엿다 이때문에 적극조례개정심의로 개최될 십이월부회에서나 행정구역확장안이토의될 모양이다

愛慾의彼岸 【142】



李光洙 作　金康稷 畵

『안즈세요!』

하고 문임은 제몸 흔들지려하고 바라보고 섯는 은주의 시선을 피하면서 몸을돌린다 죽에 몸을 비켜서 안젓다。십분흑하는 아이는 물고러히 두사람을 바라보고잇섯다。

『이칭으로 올라갑시다。』

하는 은주의 소리는 떨렷다。

문임은 은주를 힐끗 보고는 잠깐주저하다가 마치 그 의지력이 도저히 은주의 시선을저항할수업다는듯이 고요히 층계를 밟고 올라갓다。

이칭에 올라온 문임은 한참어나 우둑허니 섯더니 애원하는나즛로 한손을 은주의 어깨에 언젓다。

문임의손이 은주의어깨에 와 다흘때에 은주는 치거 떨림을깨달앗다。그때에 문임의 나체든 애원하는비츤 찰듯지것이 아니엇다。

『용서하셔요』

하고 문임은 입을 열엇다。

은주는 근육 하나 옴지기지 아니하고 문임을 보고 잇섯다。마치 은주는 아주 구더진것 가탓다。

『용서하서요』

하고 문임은 또 한번 말하고는 무서운드시 은주의 어깨에서 손을 떼엇다。

『무엇 용서하란 말요?』

하는 은주의 소리는 마치 도끼로 나려치는듯하엿다。

『헐수가 업서서——아모리 생각해도——다 제가 잘못이조만……』

문임의 말은 뭇손 뜻이지를 알수가 업섯다。

『어쩌단말요?』

은주의 두 눈ㅅ섭이 옴지겻다。

『하도 김장로님이——』

『김장로님이 어쨋서?』

은주는 머리가 떨리기 시작햇다。

『김장로님이 하도 그래싸하서——아모리모면하라도 모면할수가 업서서——용서하서요! 내가 죽일년이니 용서하서요』

은주의 눈과 입의 근육이 찌그러지는듯하더니、문득 두 손으로 문임의 어깨를 짝 그러쥐이며、

『문임!』

『네』

하고 문임을 노려보앗다。

문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럿다。

『어쨋단말야?』

하고 은주는 문임의 어깨를 힘것 잡아흔드럿다。

『혹、혹、혼인을 하게되엇서요』

하고 문임은 흑흑 느끼며 울기를 시작햇다。

은주는 잇발을 사려물고 문임을 힘것 흔드러서 때밀첫다。

그 바람에 문임은 마루ㅅ바닥에 쌍하고 소리를 내면서 쓰러젓다。

은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걸음 문임 잇는대로 가까이 가다가 분을 꾹 참고 뒤로 물러섯다。은주는 당장에 문임을 죽여버리고 시펏다。겨혀 팔이나 몽둥이가 업나 하고 차젓다。은주의 눈은 물건을 바로 볼수가 업섯다。방ㅅ바닥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전기등이 셋으로 넷으로 보엿다。마룻바닥에 쓸어진 문임의 모양이 보엿다 안 보엿다 하엿다。숨은 허덕 마히고 엽은 바짝 말랏다。갑작히 손발이 어름가티 식어서 자개바람이 날듯하엿다。

은주는 발ㅅ길을 들어서 문임을 밟으라다가 문임의 엽구리를 향하고 나려가는 발을 가까스로 끌어당기어서 마루ㅅ바닥을 밟앗다。

은주는 문임을 논죄하는 무슨 말을 하고시펏스나 입과 혀가 구더서 떨어지지를 아니하엿다。다만 잇발이 마조 닷는 떡떡떡떡하는 소리가 지옥에서 솟아오르는 소리모양으로 무시무시하게 이윽산한 방의 밤ㅅ고긔를 흔들뿐이엇다。

아수라와 가티 무서운 형상을 보이고 덜덜떨고 잇던 은주는 문득 아랫칭으로 뛰어나려갓다。

은주는 텍시를 불럿다。그리고는 한짝남겻던 명듀옷을 마자 닷고 다시 이칭으로 뛰어올라왓다。이칭에 올라온 은주는 양복 저고리와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는 극히 친착하게 저고리ㅅ소매와 외투ㅅ소매를 가끈이 하고 깃을 바로잡고、그리고는 구두를 벗고는 새 양말을 갈아신고、그리고 나더니、

『문임!』

하고 힘잇게 불럿다。

문임은 쓰러저울면서도 은주가 하는 양을 다보고잇섯다。그가 전화를 거는것、텍시를부르는것、옷을 갈아입는것、등、등。

『新淸酒』發賣

丹楓은 지처 嘉酒한층 芳香이 그윽한 이가을에 諸賢께서는 益益 御淸健하시옴을 仰祝하옴나이다

却說 今般現時代의要求에應하와日本各市場에서好評이 嘖嘖하온鈴木梅太郎博士의發明으로된理化學硏究所創製의 新淸酒를弊社等二工場에서分擔을어더 過般來鋭意釀製中이든바 十一月一日을期하와 新世界 一新 名稱下에 朝鮮의 同胞諸賢 아페비로소 氏을뵈옵게되엿습니다 아시는바와가티 日進月步의 現代 科學力은드듸여 日本淸酒의 奧妙한 扉를열고一步나아가 在來淸酒의短處를補足하고長處는改善하야有害物은秋毫도 混和하지아니하고味覺亦如甘露의芳香無比한理硏新淸酒의出現을보앗슴으로이것이참으로百藥之長이라할만한淸酒입니다 試驗으로我新淸酒의特徵을 들자면

一、腐敗치안코 二、頭痛이업스며
三、防腐劑를絶對로使用치안음

有益한衛生的임은勿論美味廉價의大衆的淸酒임으로반드시諸賢의嗜好에適合할것을自信하오니아모조록今後는이新淸酒를愛顧하여주심을바라는바입니다

追而販賣는于先左記二種으로販賣하게되엿슴니다

一升甁入 二合甁入

昭和十一年十一月一日

新世界 一新

釀造元 釜山 大鮮釀造株式會社
釀造元 馬山 昭和酒類株式會社
發賣元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海陸物産物皮物鳥獸藥種 果物賣買委託販賣業
東大門商會
閔丙昱
京城鍾路四丁目一五九、八 電光二一一六八 (東大門市場)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輸入系優良山羊養場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三〇五二番 振替口座京城三三〇番

간질
實任治療公開 精神療法、神藥、米國가일로療法應用、별별약으로도 낫지안는분은 最後的 決心으로 問議하라
京城府新設町七〇ノ一 京城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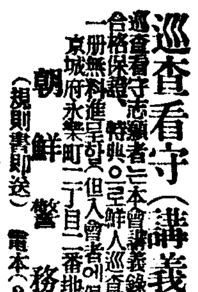
藥 御問屋
營業案内中枝進呈
株式会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電本 九〇四一、八六〇一 九〇四三、四〇九九 振替京城一一六番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淋疾이거든、藥物療法에 失敗햇거든、最新科學療法으로……
製造元 京城古市町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 平山幸造堂
電話光化門一九一番 振替京城一三六六番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三十冊 一冊 六十錢 一年三個月卒業
普通科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卒業
(速修 隨意)
學則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 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 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輕費診療 大衆醫院
貫鐵町一三五(우미관골목)
電光五三二四(오이샤)

民刑事訴訟事務親切酬應
辯護士 法學士 正六位 小松淺五郎
事務所 京城府貞洞町二十七番地
電話長光化門二三二二番 振替京城二一五二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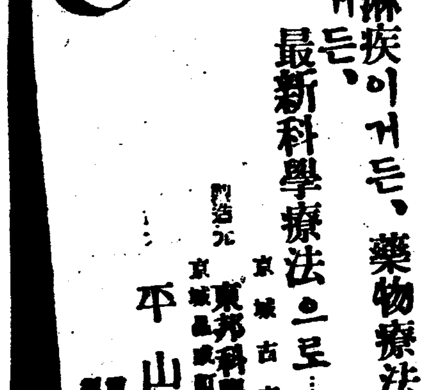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即送) 電本(2)三〇二〇番

光武劇場
往十里
淑英娘子傳 古代의說話
아리랑

永樂町 電本三番 中央館
每日晝夜二回興行(晝夜入替ナシ) 晝の部一、二、三 夜の部六、五
五日ヨリ八日マデ四日間 階下普通料金均一公開
古城の扉 ポリスカ・フロカ主演
無敵亂鬪王 第四篇 ハヤブサ・ヒデト主演
神變不知火冠者 松山宗三郎 三城輝子主演

春香傳 全十一卷 監督李銘牛 主演文藝峰 朝一松
十一月七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晝夜二回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版

아리랑고개 監督洪吐無氏 主演文藝峰盧載信
全發聲漫畵二番
桃花劇場



經濟解說

米移出新記錄
新米穀年度는如何

李○○

昨年十一月一日부터 今年十月末日에 至하는동안의 昭和十一年米穀年度에잇서 朝鮮米의 日本內地로 건너간것이 九百四十六萬 四百二十二石으로 過去의最高記錄인 昭和九年米穀年度에比하야도 三萬餘石增인 新記錄을지엇다。그原因은 年度關係이나 十年產 朝鮮米實收는 一千七百八十八萬四千六百石으로 比較的豐作임에 反하야 日本內地米는 五千七百四十五萬六千九百七十六石으로 凶作이엇기에 日本內地의 米價高로 朝鮮米가 만히나가게된때문이다。即 前年度移出高에比하야 六十萬石移出增인 反面에 十月末今朝鮮各主要港在米는 三十一萬四千六百四十一石으로 比前年同期 二十六萬五千九百三十七石의 減少를 示하엿다。

×

그러나 各月別로 移出狀況을보면 내리增加되어온것이 아니오 一、二、三月中은 先高豫想이 濃厚하야 農家의賣惜으로 移出이 極히 不振하다가 四、五月부터 米價高로 一時移出이 殺到하야 旺盛하얏고 從하야 今年移出은 一千萬石以上이되리라는 觀測이서기까지 하얏든것이나 다시賣惜人氣로 七月中의 米移出은 三十四萬石으로 比昨年同期 十[illegible]萬石減을 示하엿도 잇섯다가 八月에入한 [illegible] 으로轉하야 日本內地米十一年產米收穫豫想이 [illegible] 情勢가 緩和되고 移出 [illegible] 加해 왓섯다。이제 月別과 最近五個年間移出高를示하면如左하다。

○月別移出高

十年十一月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十一年一月	[illegible]
二月	[illegible]
三月	[illegible]
四月	[illegible]
五月	[illegible]
六月	[illegible]
七月	[illegible]
八月	[illegible]
九月	[illegible]
十月	[illegible]

○最近五個年間移出高

昭和七年度	[illegible]
八年度	[illegible]
九年度	[illegible]

十年度 [illegible] 十一年度 [illegible] 米移出最高記錄을보고 지금에잇서 우리의머리에떠오르는것은 今年十一月一日부터시작된 新米穀年度의朝鮮米移出이 果然얼마나될것이냐 생각해본것이다。[illegible]

朝鮮肥料統制
組合을組織치안코
總督府서直接監督

重要肥料統制法의 朝鮮勅令案은 殖產、農林兩局과 法務室과의 間에서 愼重檢討中이든바 이지음 稿하야 드듸어法制局에 廻付를보게되엿다 日本內地 法規와의 相違點은 日本內地는 肥料業者에 組合을 結成시키고 此組合으로 하야금 自治的統制를 行케하기로 되어잇슴에 對하야 朝鮮에서는 肥料製造業者가 少數임으로 組合을 組織식히지안코 總督府가 直接的으로 그 業者를 監督하기로되어 이에伴한 諸條項이 相當히 改廢되어잇다 大體 十一月中에 法制局의 審議를 終了하야 公布를보게될터이다

松原朝銀副總裁 滿洲入逢內諾!

滿洲國某銀行의 首腦部의 人選에 關해서는 關係方面에서 銓考中이든바 總裁에는 大藏省財務官 富田勇太郞氏를 起用키로 決定하고 同副總裁에는 現朝銀副總裁 松原純一氏에게 交涉한 結果 內諾을 어덧스므로、드듸어 近日中에 이發令을 보게될터이다。

그런데 松原氏의 後任에關해서는 目下 朝鮮總督府財務局長 林繁藏氏에게 交涉中인데 萬若同氏가 受諾지안을境遇에는 當分缺員대로둘모양이라한다。(寫眞은松原氏)

經洛寸鐵

○ 朝鮮米移出年計는 九百四十六萬石으로 從來最高記錄인九米穀年度移出高를 凌駕하는新記錄

○ 이러케 늘어가는것을 못들어가게하자는政策은 朝鮮實情과 맛지안는것이아닐가?

○ 勿論 朝鮮만의事情이지만…

○ 四大重工業을 明年度부터助成하리라고

○ 朝鮮도軍需景氣를 보이게되나보다

○ 明年度 工事請負額은 五千萬圓으로 實施하리라고

○ 叺檢朝鮮의活況!

○ 土木談合事件으로 指定停止處分을바든 九十名이停止解除되엇다고

○ 土木業者의 黃金時代가 再現하리라나보다

○ 朝銀松原副總裁의 滿洲入은 結局 內諾하얏다고

○ 간다간다 말성거리이든 가튼副總裁자리이지만 新銀行이니 害될지안흘것

○ 松原氏後任으로 林財務局長說이 有力

○ 朝鮮의 大藏大臣格이니 이왕이면 總裁자리를 겨우어보는것이若何 勿論안될 소리지만……

米穀統制會社案
資本金은五千萬圓目標
今週中最後決定?

米穀淸算取引所의 機能失墜와 그經營不明으로 全國米取를 吸收하야 日本米穀株式會社의 名稱으로 獨立한 統制會社를 創設할 具體案이 目下 農林省의 米穀配給調整協議會에서 立案中인데 問題의 中樞는 資本金을 어느程度로 決定할것이냐 하는것으로 一時는 三、四千萬圓程度로할것이라고하얏다 取引所及取引員側을 代表하는 意見으로는 賠償金三千萬圓을 適當하다고 하는데對하야 政府側에서는 二千萬圓을 主張하야 그사히에相當히 主張의差가잇섯다 그런데 取引所側에서는 將來 新設되는 統制會社는 될수잇는대로 政府에 依賴하지 안키爲하야 되도록 資本金을 만히할것이라하야 最近에는 다시 當初案 五千萬圓으로 하려고한다。即 從來傳하든 政府出資와 公募一千萬圓식 二千萬圓이던것을 二千五百萬圓으로하고 그대신 賠償金을 減額하야 二千五百萬圓程度로하야 政府側의 主張及 米取當局의 對立的地位에잇는 正米關係者의 立場도考慮하야 妥協點을 發見코저 하는바 數日內로 第二部會의 承認을 求하야 最後案을 決定하리라한다

十月不渡手形

十月中 京城手形交換所로부터 不渡手形을내여 取引停止를當한 件數는 四十九件으로 其中 朝鮮人은 三十六件이오 日本內地人은 十三件이엇다한다

和信連鎖店大會盛況

第一回全朝鮮和信連鎖店大會는 五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京城府民館中講堂에서 來賓五十餘名과 連鎖店主三百餘店 和信關係社員等 出席으로 盛大히開催되엇는데 朴社長의 式辭에이어 朱專務의 事業報告가잇고 優良連鎖店(慈城徐享信 新設東豐濟 舒川韓甫天 南川申敎德 杆城黃正根 安義李奈甫 松川李秉臣)七店에 表彰狀과 記念品을 授與한後 來賓祝辭(殖產局長、殖銀頭取、京商議會頭、京城商工協會長、京城紡織社長)가 잇섯스며 連鎖店代表答辭로閉式하고 이어서 朝鮮日報主筆 徐椿先生의 [illegible] 講演이잇고 午後는 協議會가잇섯는데 第二日인 六日부터는 朝鮮日報社講堂으로 會場을옴기어 綜合契約會及 見本市를 九日까지 開催하리라한다。(寫眞은 大會場)

短資昂高로
限外發行繼續

朝銀券의 發行高는 秋期米穀資金其他 資金需要期에 들어가漸次膨脹하야 一億六千萬圓臺에오른채 逐增傾向에잇는데 一方日本內地短資市場은 月末前日物을 一錢으로부터 一錢一厘를唱하고 月越九厘乃至 一錢을唱하고잇기때문에 朝銀에서는 先月末來 約二千萬圓의 限外發行을 連日行하고잇다 그러고 今日中旬부터 中旬에들어가면 七厘乃至 八厘까지引弛할것이라한다

經濟界消息

○安川雄之助氏總督과重要會談=元三井財閥巨頭安川雄之助氏는 軍部方面의 依賴를受하야 滿洲產業其他經濟情勢를 視察中이던바 三日朝入京하야 四日總督府로 南總督을 訪問하고 朝滿問題其他에 關하야 長時間懇談하엿는데 懇談의內容은 注目된다고

○金聯事業部參事會=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四、五日의 兩日에 聯合會會議室에서 各道支部의 事業部擔當參事會議를 河野事業部長司會下에 開催하야 事業開設에 伴하는 購買販賣問題와 米穀資金問題의 協議를 行하엿다고。

○朝鮮運送總會=朝鮮運送에서는 來廿七日午後一時부터 中野社長臨席下에 定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上期決算案을 附議可決하기로되엇는데 株主配當은 年五分据置로 決定하엿다고

湖南方面六無盡 大田無盡에合併

京畿道의 無盡合同이 遲遲不進인데 最近湖南方面에서 大田、裡里、群山、木浦、光州、順天의六無盡會社間에 大田無盡을 中心으로 自發的合同機運이 釀成되어注目된다한다

取引停止 (十月三十一日)

▲貴金屬商京城府南米倉町二〇五番地 彭山新吉 ▲京城府南大門通五番地 서울레코 石川信之 ▲세멘트土管及土器 京城府阿峴町三八〇一番地 阿峴工作所 金昌培 ▲京城府司諫町一二一番地 金桂祚 ▲京城府體府町一四三番地 宋基一 ▲茶舖京城府櫻井町一丁目八七番地 青香園 納江完元 ▲京城府漢江通日新印刷株式會社 取締役申井演系七

商況〔五日〕

株式 揉合裡에 少戾

前場保合

今前場은 東新百卅七圓九十錢、日產八十三圓五十錢、鐘新百七十七圓丁、朝新六圓十錢에 各各 寄付하얏는데 東新은 少戾氣味를보여 百卅八圓五十錢을 보이고 四十錢에 大引하엿스나 諸株不勢로 日產八十三圓廿錢、大新七十一圓廿錢에 各各 大引하야 市勢는 東新少戾裡의 保合商狀이엇다

後場少戾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九十錢 日產八十三圓四十錢、朝新三十五圓八十錢으로少戾이엇다

▲東新 [illegible]

當分低價鍛鍊

連日 續落步調로 漸落不振한 東新이 今朝에는 百三十八圓臺로 少戾氣味를 보엿스나 目前의不安한情勢는 容易히 上價回復을不許할것이므로 當分 玉整理와 形勢觀望裡에 少幅保合을 繼續하면서、再次低價를 鍛鍊하야 비로소上昇할것이 아닌가하는 觀測이有力하다 그日前의不安이라는것은 懸案인日中交涉의 停頓도잇스나、첫재는 金融硬化傾向[illegible]

日產株의足跡

金般低利를 背景으로 時局株中心의 買氣가 旺盛을 極하엿스나 日產은人氣的으로 버림을바더 七十五、六圓에 正株의壓迫이잇고 減配를念慮하는판에 二·二六事件이 勃發하야 二月의七十六圓六十錢의 高價가 四月에는 六十三圓五十錢의 低價에 買叩되엇다 持株公開는 할수업더라도 子會社의 業績良好를傳하야 再次五月에 七十四圓臺로 回復하엿스나 突然一分減配斷行을 發表하야 七月까지 低迷를不免하엿다 그런데 그後久原과의 關係가 劃然하게되고 日鑛、日立其他의 好成績과 共同漁業의 配定等으로 再認識의 輿論이 노파지어서 八十圓臺를 確保하야 今日에至하엿는데 一割配當으로한것이 도로혀 好感되게되엇다。月別高價는 如左하다

月別	高價	低價	價幅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新株를 東京實物에上場

朝取新株의 東京株式取引所實物第一部上場은 正式으로 決定하야 四日부터 取引을 開始하엿다

實物前場取引

▲朝鮮製鍊 [illegible] ▲라사工業 [illegible] ▲全鮮織業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東邦人造絹 [illegible] ▲東洋製綿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人造肥料 [illegible] (取引高二百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連日 相當히 投[illegible]

金融硬化傾向

社債의 取引不振、短期資金의逼迫에 依한 公債價格의 低落으로 最近 金融硬化念慮가 濃厚하게 되엇는데 이것이 低金利市勢에 暗雲을 招來한 根源으로 이는一時的現象이나 그心理的影響이 重大한것만큼 注目을 要한다 이는 物色買의 攻勢資本의 株式資金이 增加한것이 短資硬塞의 原因이라고도 解釋되나 亦是根本은 政策의 不徹底에 基因한것이니 社債取引不振은 增稅結果 不明으로 採算이 안될으로써요、公債는 政府資金放出이 遲延되는데다가 公債發行同時에 民間資金을 吸收하기로 實行이 鈍해질것은 明白하다고、一般財界에서는 低金利政策徹底化를 要望하고 잇는모양이다

阪仁例外縮鞘 百八十八丁까지

今朝阪仁의鞘는 百七十七丁의 例外縮鞘를示하엿다 在來의開鞘 二百二、三十丁의 前例로보아서는 更히買進할餘地도업고 따라서 阪地의市勢가 反騰한다할지라도 當地는追從하지못할것으로 볼수잇스나 그러나 今年米의事情은 例年과달려서 日本內地는 昭和八年度大豐作의 다음가는豐作이라할수잇스나 朝鮮米는 正[illegible]

六感

株……金融硬化傾向과 國債低로 買人氣를 助長하엿는데 또다시 軍部의 國家總動員計畫案이 問題化▲그러나 이것이 今日에 創案主張된것도아니오 또株式界를 脅威할것도 업을듯▲지금의 情勢에서國家가 事業界를 全面的悲觀에로 誘導하랴?▲雜株의增資豫想市勢는 벌서買餘地가업서젓스니 이제는 投機市勢가 올때라고 獨派는主張▲그러나 前途는 如何든 지금은保合商勢를 當分繼續할모양……

米……高價에서六百五十丁의 後退를見한後이라 市勢의그自體도 一段反動高를 示하는것이、當然한데다가 四圍의情勢가買方의後援材料도不無▲朝鮮米의第二回豫想은 第一回보다 約三百萬石減收說이 不無하고 日本內地米의第二回豫想도 有減無增의모양▲此豫想로 賣派의雲霧豫想은 더욱 緊張할모양이니아즉도 高價는 남거잇는듯▲그러데 今朝堂島市場를中心으로 田中良의當限八萬石解合成立說을傳하다 어느편에서면지解合을 請하엿는지는들어나지안핫다 當限은 依然頑强

期米 買氣繼續 急騰

前場續强

昨後場阪地二十九圓二十錢에止와 共히二十七圓三十五錢에 據置止한當市場도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二十四錢엔四丁反高로 據하고二十七圓四十七錢인 十二丁高로 據會한後 阪地二圓二十九錢으로七錢까지 小動하엿다가 阪地三十六錢으로 小寄하엿으나 四十錢으로 反反止히高로 後市하야 五十錢으로 四十八錢에 據會止하고 五十中限은 東의進展로가장 伸張하야 五十錢으로四十九錢에止하고 當限二十七錢으로 二十六錢에止하다

後場暴騰

後場은 二十七圓五十四錢인 六丁高로 始會한後 三圓六十錢으로 結局五十五錢에 止하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不申▲一回四分利 一〇〇、七五▲二回四分 一〇〇、二〇▲佛貨 一九、四▲英貨六分半 三八、三〇▲米貨六分半 [illegible] 一〇〇、二〇 ▲滿洲公債 一〇〇、二〇 九〇

今日財界(五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豆 [illegible]

新米買上注目
兩方見解各異

今回政府米五十萬石買請에 對하야 賣却은 旣히四十一萬餘石으로 決定되어 好成績을들하엿스나 五十萬石買上의成績은 마치 何如할지 一般의注目을 끄는터이다 此에對한兩方의見解는 各異하야 軟派는 이번買上의 成績이 良好하는대는 持米側이 될수잇는대로 秋高價에 賣分하려하는것을 表徵하는것이라고 軟材로볼수잇다고 主張하며 硬派는此에對하야 政府의豫定價格이 低廉하고서成績이 良好하다하면 硬材로보지안흘수업스나 高價豫想이 만흔 이良好할때에는政府가 高米價政策을 取함을 暗示하는것입으로 此는硬材로보지안흘수업다고 主張하고잇다 그런데政府의大體政策은 消費者의立場도 考慮지안는바는아니나 元根本方針이 生產者擁護에 重要하고 잇슴으로 買上의豫定價格을 低廉하게 定하지는 안흘것으로 硬派는觀測하고잇다 何如間買上價格의高下와 成績의如何로써 一波紋을 惹起할모양이라關心?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大解合成立

大解合成立에 賣方主力의 [illegible]

各地正米

今朝主要商買方은 如左하다 [illegible]

京城軟調

定期高를 보고도 依然 이러타할 買物이업서 氣는 十錢軟化이엇다 ㊀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 二一、五〇

仁川不勢

期米는 强調이나 實行不振에 買氣不添하야 氣配十錢軟化이엇다 ㊀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 二一、一〇

釜山保合

市場出廻二千叺이엇스나 定期强調에 低價는 實際擁護하야 正米採算良好에 買氣가잇스되 高價飛付買는 警戒되고잇다 市勢는保合이엇다 ㊀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 二一、三〇

大邱不變

定期는强調이나 買氣는 依然 進捗되지안는다 奧地出廻는 日日增加하나 賣惜態度는 意外로 緩和되지안허 取引은閑散이다 ㊀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〇〇 一等白米 二一、九〇

群山堅調

正米는 奧地의 正租出廻가 早稻는 一巡하고 遲稻는 麥播關係로 적으며 繼續되는 好日氣에 乾燥充分과 正租는 漸次 定期强調로 强調를 呈하고잇다 市況은 ㊀三等二八、六五 四等二八、五五 一等白米 二一、四五

木浦少康

出廻가旺盛하야 五千叺程度가잇스나 阪地期米의 當限高에 刺戟되어 低價는實際를 하야 氣配十錢高唱이엇다 ㊀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 二一、〇〇

◆金融 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五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國油相場 [illegible] ◆國油相場[illegible] ◆國紳綿相[illegible]

康益商店 仁川 米 株 京城 金益證券部

株式 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仁川 福 米期 吉村取引店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限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賣買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全北朝鮮紙 品質極良 薄利多賣 一手販賣 全州 元朝鮮紙業株式會社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商品 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키카코期米 [illegible] ◆日本豆粕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大阪期米賣買高 [illegible]